

- 제120주년 기념 -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 일 시 : 2014. 4. 24(목) 16:00~
- 장 소 : 고창군 귀농귀촌학교 세미나실
- 주 최 : 한국사연구회·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학술대회 일정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16:00	16:01	1	•개 회	사회자
16:01	16:02	1	•국민의례	
16:02	16:05	3	•개회인사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6:05	16:30	25	•기조강연	제7회 녹두대상 수상 기념 강연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일본 나라여자대학) ※통역 : 박맹수 원광대 교수
16:30	17:10	40	①주 제	고창과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
			•발 표 •토 론	박맹수(원광대 교수) 김양식(충북학연구소장)
17:10	17:50	40	②주 제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창의문)의 사료적 가치와 위상
			•발 표 •토 론	배항섭(성균관대 교수) 성주현(청 암 대 교수)
17:50	18:30	40	③주 제	동학농민혁명 기포지에 대한 연구
			•주제발표 •토 론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부장) 조재곤(전, 동국대 교수)
18:30	19:00	30	•종합토론	토론좌장 : 신영우(한국사 연구회장)
19:00			•폐 회	

- 기조강연 : 제7회 녹두대상 수상 기념강연
- 나카츠카 아키라(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 1

 - 전북 고창과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에 대하여
- 박맹수(원광대학교 교수) ----- 7

 -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의 사료적 가치와 위상
- 배항섭(성균관대학교 교수) ----- 21

 - 무장기포지에 관한 연구(사료·구전·증언 중심)
-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 39
-

제 7회 녹두대상 수상 기념강연



제 7회 녹두대상 수상 기념강연

나카츠카 아키라

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금번 전라북도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서 '제 7회 녹두대상'을 수여해 주셔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 7회 녹두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제 개인의 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오랜 기간 저의 연구를 원조해 주신 벗들과, 또한 한일(韓日) 두 나라 사이의 평화와 우호를 위해 연대활동을 함께 해 오신 한국과 일본의 뜻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쌓아 올린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런 수상에 즈음하여 반(半)세기 남짓에 걸친 저의 연구활동의 개략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감사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저는 1960년대 초반부터 청일전쟁(淸日戰爭)을 주된 테마로 삼아 연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청일전쟁 연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야마베 겐타로(山辺健太郎, 1905~1977) 선생이었습니다. 그 분은 1920년대부터 사회운동에 투신하여 일본의 천황제(天皇制)라는 전제적인 압박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았던 대단히 자유 활달한 분이셨습니다. 야마베 선생께서는 일본이 제 2차대전에서 패전한 직후(1945년 이후 -주)에 역사 공부를 막 시작하려고 하던 저를 포함한 젊은 연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일본근대사를 제대로 해명하려면 무엇보다도 조선(朝鮮, 여기서는 남북한을 통칭하는 의미이다 -주)문제에 대한 해명이 불가결하다는 점이었으며, 둘째는 일본의 천황제 아래에서 출판된 모든 책들, 예를 들면 사료(史料) 편찬물 등에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한 부분이 많아서 도무지 신용할 수가 없으니, 앞으로 역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1차 사료(=원사료)를 통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두 가지 가르침이었습니다. 야마베 선생께서는 몸소 그 같은 원칙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어로도 번역 출판된 『한일병합소사』(1966년)와 『일본 통치하의 조선』(1971) 등의 역저를 저술하셨습니다.

저 역시 야마베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을 준수하면서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에 일본의 정치가 및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서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憲政資料室)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관계문서가 헌정자료실을 통해 공개되었기 때문에 저는 헌정자료실을 거점으로 삼아 연구해 왔습니다. 1968년에 낸 『청일전쟁 연구』(아오키서점), 1992년에 낸 『켄켄로쿠의 세계』(미스즈서방) 등이 바로 그 같은 연구의 성과입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특히 일본 천황제 아래에서 나온 출판물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제 1차 사료를 찾는 연구방법이 몸에 베인 저는 1994년에는 후쿠시마(福島縣) 현립도서관 안의 사토문고(佐藤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 참모본부(參謀本部)가 편찬한 『일청전사(日淸戰史)』 초안을 찾아내기에 이르렀고, 그 초안속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이 조선왕궁인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한 사실이 상세하게 쓰인 기록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과가 바로 1997년 일본에서 간행된 『역사의 위조를 밝힌다』(코분켄출판사)입니다. 1) 그 뒤 1995년 7월에는 걸 표면에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首級)'이라는 붓글씨가 쓰여져 있는 전라남도 진도출신 동학농민군 지도자 두골(頭骨)이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서 발견되었고, 이 두골에 얽힌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박맹수교수가 홋카이도대학으로 유학해 왔습니다. 1997년 가을에 저는 홋카이도대학의 이노우에 가츠오(井上勝生)교수와 박맹수 교수를 삿포로시(札幌市)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2001년 5월에 한국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동학농민혁명의 21세기적 의미」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국제학술대회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연구해 오신 여러 학자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의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돌아보는 현장답사(필드워크)에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국제학술대회 자리는 바로 동학(東學)의 정신이 현대 한국에 맥맥히 이어지고 있음을 실감했던 학술대회이자 답사였습니다.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때 받았던 감동을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달하여 2002년에 일본인 단체 답사팀으로서는 최초로 바로 이곳, 여러분들께서 자리하고 계시는 고창의 전봉준장군 생가와 무장읍성 등 자랑스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땅과 유적지들을 직접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한국의 박맹수 교수와 함께 「한일 시민이 함께 하는, 동학농민군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한일 공동의 답사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올해(2014) 제 9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이노우에 가츠오 교수가 동학농민군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대응, 즉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작전의 실상을 증언해주는 사료 수집에 있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일본군의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작전의 핵심부대인 후비보병(後備步兵) 제 19대대의 대대장인 미나미 고시로가 수집했던 문서²⁾를 비롯하여, 후비보병 제 19대대 제 1중대 제 2소대 제 2분대 소속으로 참전한 쿠스노키 비요키치(楠美代吉) 상등병의 종군

1) 『역사의 위조를 밝힌다』는 원광대 박맹수 교수의 번역으로 2002년에 한국의 '푸른 역사' 출판사에서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는 제목으로 한국어판이 간행된 바 있습니다.

2) 후비보병 제 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가 수집했던 동학관련 문서, 즉「미나미문서」는 2012년 4월에 한국의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기획한 특별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도록: 동학농민혁명의 진실을 찾아가다, 2012년 4월 참조)

일지인 『메이지27년 일청교전 종군일지(明治二十七年 日清交戦 從軍日誌)』³⁾ 등을 발굴해 냈으므로 동학농민혁명과 일본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획기적인 사료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미나마문서」 및 「종군일지」 등의 새로운 사료 발굴을 계기로 작년(2013)에 저는 한국의 박맹수 교수와 일본의 이노우에 교수 등 3인 공동으로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 또 하나의 전쟁』(코분켄출판사, 뒷면 사진 참조)이라는 저서를 일본에서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노우에 교수의 역저인 『메이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홋카이도에서 조선으로-』(이와나미 서점, 2013년 8월, 뒷면 사진 참조)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주력으로 하는 조선의 인민 대중들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어떻게 싸웠던가, 그리고 그 같은 대규모 항일투쟁에 대해 당시의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무슨 짓을 자행했는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 있어 가장 최신의 연구 성과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한국(북한 포함)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는 19세기 후반 이후 일본의 침략 때문에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가로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진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해 옴으로써 보통의 일본인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같은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군에 의한 최초의 제노사이드 작전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일본군이 자행한 동학농민군 학살, 즉 제노사이드 작전의 실태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했었습니다.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잔혹하게 학살한 제노사이드 작전 실태를 상세하고 깊이 알게 된 계기가 바로 1995년 7월, 홋카이도 대학에서 한국 진도 출신 동학농민군 지도자 두골이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두골의 발견을 계기로 한일 두 나라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가 시작되었고, 이윽고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배우고자 하는 한일 두 나라의 시민운동 차원으로 새롭게 발전, 전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여 받은 ‘녹두대상’을 일본의 벗들에게 전달하여 ‘녹두대상’ 수상이 주는 의미를 일본의 양식 있는 시민들과 함께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일 두 나라 시민들이 역사의 진실 앞에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금번 ‘녹두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추진해 온 한일 양국의 평화와 우호를 염원하는 풀뿌리 민간교류 활동에 커다란 격려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려 발전시키려는 제반 사업들이 더욱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염원드리면서, 저 또한 한일 두 나라 친구들과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두대상’ 수상에 따른 저의 인사말씀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쿠스노키 비요키치 상등병의 종군일지에 담긴 주요 내용은 2013년 8월 29일자 『한겨레신문』을 통해 널리 공개된 바 있다.

東学 農民戦争 と日本

中塚 明 専攻女子大学名誉教授
井上勝生 北海道大学名誉教授
朴 孟 洙 1919 年 12 月 25 日 生誕
韓国 円光大学教授

もう一つの日清戦争

日清戦争で最多の「戦死者」を出したのは、日本でも清国でもなく朝鮮だった——。

日本でひた隠しにされてきた日本軍最初のジェノサイド作戦の歴史事実を、日韓の共同研究にもとづき、新史料を交え、生々しく伝える！

高文研

高文研

0111 岩波現代全書
Iwanami Gendaizensho

井上勝生
Kinnosuke Inoue

北海道から朝鮮へ
明治日本の
植民地支配

一体の遺骨の謎から、
ジェノサイドの真実へと迫る

定価(本体 2100 円 + 税)

100%
岩波書店

전북 고창과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에 대하여



전북 고창과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에 대하여

박 맹 수

1. 서언

1894년 음력 3월 21일, 동학농민군이 조선왕조 전체의 폐정개혁(弊政改革)의 기치를 내걸고 전면 봉기했던 장소는 종래 정읍 고부 또는 부안 백산으로 잘못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1백 주년이 되던 1994년을 전후하여 급진전된 관련 연구 및 관련 자료의 대거 발굴을 통해 동학농민군이 전면 봉기한 장소는 정읍 고부도, 부안 백산도 아닌 고창의 무장(茂長)이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먼저, '무장(茂長) 기포설'이 학계의 정설로 정착되는 역사적 경위 및 관련 사료들을 제시하고, 다음으로는 무장 대접주 손화중 관련 자료를 통해 손화중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무장 기포설'을 증언하는 자료들

1894년 음력 1월 10일의 고부농민봉기(종래 고부민란)를 주도했던 전봉준 등은 안핵사 이용태의 가혹한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3월 13일경에 따르던 심복 동학교도 수십 명을 거느리고 인근 고을인 무장(茂長)의 손화중 대접주 관하로 피신하였다. 당시 손화중 대접주는 괴치(塊峙, 현재의 고창군 성송면 괴치리)에 도소(都所)를 두고 있었다. 피신해온 전봉준은 무장, 고창, 영광, 나주, 장성, 정읍 등의 동학 접포(接包) 조직을 관할하고 있던 손화중을 설득한 끝에 손화중 포 관하의 동학교도들과 함께 조선왕조의 폐정개혁을 위해 전면 봉기할 것을 결정하고, 3월 15일을 전후하여 괴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무장현(茂長縣) 동읍치면 당산마을(현재의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시내 마을)을 중심으로 농민군을 결집하기 시작했다.

무장을 비롯한 전라도 서남해 연안 고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손화중 포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게 된 전봉준은 3월 20일경에 전면 봉기의 대의(大義)를 전국 각지로 알리는 「무장포고문(茂長布告文)」을 선포하고, 다음 날인 3월 21일에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 아래 조선왕조의 폐정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봉기를 단행했다. 그리고, 3월 25일경에는 부안의 백산(白山)으로 이동하여 농민군 진영을 전면 개편하여 연합 농민군부대를 편성하였다. 또한 백산에 결진한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호남창의대장소(湖南倡義大將所)' 이름으로 격문(檄文)을 발송하여 일반 민중들의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사대명의(四大名義)'와 함께 농민군의 행동강령을 담

은 '12개조 기율'을 제정하여 '보국안민'의 기치에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는 엄정한 기율을 정함으로써 본격적인 '혁명'에 착수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동학농민군이 전면 봉기했던 장소는 동학농민혁명 1백 주년이 되던 1994년 전후까지만 해도 정읍의 고부(古阜) 또는 부안의 백산(白山)에서 봉기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왔다. 학계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동학농민군이 전면 봉기한 장소, 즉 동학농민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소를 고부 또는 백산으로 착각한 것은 다름 아닌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 때문이었다. 즉, 오지영은 『동학사』에서 갑오년 1월에 있었던 고부민란과 3월에 이루어지는 전면 봉기를 혼동하여 동학농민군이 1월에 전면 기포하였다고 잘못 기술하였는데, 오지영의 『동학사』를 동학농민혁명 연구상 최상의 고전(古典)으로 알아온 학계가 『동학사』에 대한 정확한 사료 검토 없이 그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전면 봉기는 고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정설(定說)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런데, 오랜 기간 정설로 인정되어 오던 '고부(古阜) 기포설'은 1985년 신용하 교수의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한국학보』 40)이란 논문이 나오면서 비로소 수정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동학농민혁명 1백 주년을 전후하여 '무장(茂長) 기포설'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원(原) 사료들인 『수록(隨錄)』, 『석남역사(石南歷事)』, 『임하유고(林下遺稿)』 등 관련 자료들이 속속 발굴됨으로써 '무장 기포설'은 학계의 정설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무장 기포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들을 소개한다.⁴⁾

1) 『全琫準供招』 初招問目

問: 작년 3월에 고부에서 기포하여 전주로 향하는 間에 幾邑을 經하였으며 幾次 집 전하였느냐

供: 所經邑은 茂長서 古阜로 향하여(고덕 필자) 태인 금구를 경하여 全州에 達하려 다가 營兵 만 여명이 下來한다는 말을 듣고 부안에 가서 고부에 還至 營軍과 접전하였다.

2) 『全琫準等 判決宣告書 原本』

被告(=全琫準: 인용자 주)가 親히 其徒를 領來하여 全羅道 茂長에서 일어나(고덕 필자) 古阜 泰仁 院坪 金溝 等處를 갈 새 전라도 營砲軍 1만 여명이 東徒를 치러 온다는 말 듣고 고부로 물러갔다가

3) 「茂長 布告文」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에서 전라북도 고창이 주목받는 땅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의 신용하 교수가 “무장에서 전면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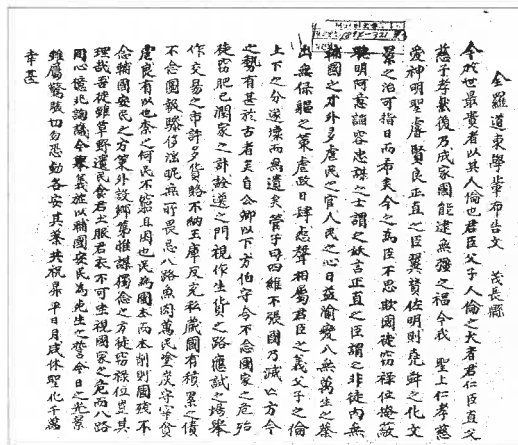
4) 동학농민전쟁 1백주년 기념 사료편찬위원회 편,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전 30권(사문연구소, 1996) 참조.

기를 단행했다”는 진술이 담긴 「전봉준 판결선고서 원본」을 일반에 공개⁵⁾함과 동시에, 동학농민군의 전면 봉기 장소가 종래 알려진 것처럼 전라도 고부(古阜)가 아니라, 전라도 무장(茂長)이라는 사실을 밝힌 「갑오농민전쟁의 제 1차 농민전쟁」이라는 논문을 『한국학보』 40호(1985)에 게재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신용하 교수에 의해 제기된 ‘무장 기포설’은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전면 봉기를 선언한 「무장포고문」이 바로 무장에서 선포된 사실을 밝혀주는 사료 원본들이 대거 발굴, 소개됨으로써 정설로 정착되기에 이른다.

전국 각지의 뜻있는 유생들과 향리층, 그리고 일반 민중들의 광범위한 호응을 호소하고 있는 「무장포고문」은 관변 측 사료인 『수록(隨錄)』과 『동비토록(東匪討錄)』, 재야 유생들이 기록한 『취어(聚語)』와 『오하기문(梧下記聞)』, 동학농민혁명 당시 서울에 주재하면서 동학에 관련된 문서를 수집한 뮈텔주교의 『뮈텔문서』(문서번호 1894-321 및 1894-322), 동학농민혁명 당시 접주로 참가한 경력을 지녔던 오지영의 『동학사(東學史)』(초고본 및 간행본), 경상도 유생 박주대의 기록인 『나암수록(羅巖隨錄)』 등 여러 자료에 실려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계는 이 「무장포고문」을 동학농민군이 1894년 1월에 고부에서 기포한 뒤, 흥덕, 고창, 무장, 영광, 함평 등 전라도 서남부 고을을 차례로 점령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이 무장을 점령한 4월 9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포고되었던 것으로 보았다.⁶⁾ 이 같은 오류는 앞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오지영의 『동학사』에서 「무장포고문」을 1894년 1월에 포고한 것으로 잘못 본 것을 충분한 사료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지영의 『동학사』가 지닌 사료상의 문제점은 이제는 상식이 되었지만, 적어도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확고부동한 ‘역사적 사실’로써 간주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지영이 범한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는 바로 1월의 고부민란 단계의 사실과 3월의 무장기포 사실을 혼동하여 동학농민군이 전면 봉기한 시기를 1월로 기록한 것이다.

<뮈텔문서 속의 무장포고문>



5) 신용하, 「자료해제: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 손화중, 최영창(경선) 판결선고서 원본」(『한국학보』39, 일지사, 1985년 6월), 184-194쪽.
6) 김의환, 『전봉준 전기』(정음사, 1981), 97-100쪽.

종래 학계에서 「무장포고문」의 포고일자를 1894년 3월이 아닌 4월로 잘못 본 까닭은 첫째 동학농민군의 1차 기포장소를 고부로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둘째 「무장포고문」에 포고한 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김의환을 비롯한 종래 연구자들은 동학농민군이 고부에서 전면 봉기한 뒤, 정읍과 흥덕, 고창 등을 거쳐 남하한 농민군이 4월 9일 무장을 다시 점령했을 때 포고한 것으로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무장포고문」이 종래의 견해와는 달리, 1894년 3월 21일을 전후하여 동학농민군이 무장에서 전면 봉기할 무렵에 포고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 「무장포고문」은 『동비토록』과 『수록』 등 관변 측에서 날짜별로 기록했거나 수집했던 동학농민혁명 관련문서 가운데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하는 문서군 속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동비토록』 속에 들어 있는 「무장포고문」의 경우, 그 말미에 '초오일 술시 전보(初五日 戌刻 電報)'라 하여 1894년 음력 4월 5일에 접수된 내용임을 밝혀 줌으로써 「무장포고문」이 포고된 시기가 동학농민군이 무장현을 점령하는 4월 9일 이전에 포고되었음을 분명히 해준다는 점이다. 즉 이 「무장포고문」은 동학농민군이 3월 21일경 전면 봉기를 단행한 뒤, 정읍과 흥덕, 고창을 거쳐 남하하여 무장현을 점령했던 4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포고한 것이 아니라, 무장에서 동학농민군이 집결하기 시작한 3월 16일 경부터 전면 봉기를 단행하는 3월 21일 사이에 포고된 것이 분명하다. 이하에서는 『수록』 표제 부분 및 첫머리에 실려 있는 「무장포고문」의 원문 '무장현동상 동학인포고문(茂長縣騰上 東學人布告文)'을 소개한다.

4) 黃玆, 「梧下記聞」

“自此時 璿準等 大會茂長縣 布告民間 其文曰人之於世 最貴者 (下略)”

위의 황현의 기록에 의하면, 동학농민군은 무장에서 기포하면서 포고문을 민간에 포고하였다고 하고, 이어서 「무장포고문」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취어』와 『동비토록』 등에 실린 「무장포고문」의 내용과 『오하기문』에 실린 「무장포고문」 내용이 동일한 내용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무장에서 기포할 당시에 포고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5) 『隨綠』

『수록』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도 무주군 관아에서 수집한 관련문서철이다. 이 자료는 어떤 경로를 거친 것인지는 모르나 일본 교토대학 도서관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가 서강대학교의 오성 교수에 의해 최초 발굴되었고, 동 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생 노용필 선생이 1992년 3월 14일의 역사학회 월례 발표회에서 소개함으로써 그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⁷⁾ 이 『수록』 첫머리에 놀랍게도 『무장포고문』 원본이 실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잇는 일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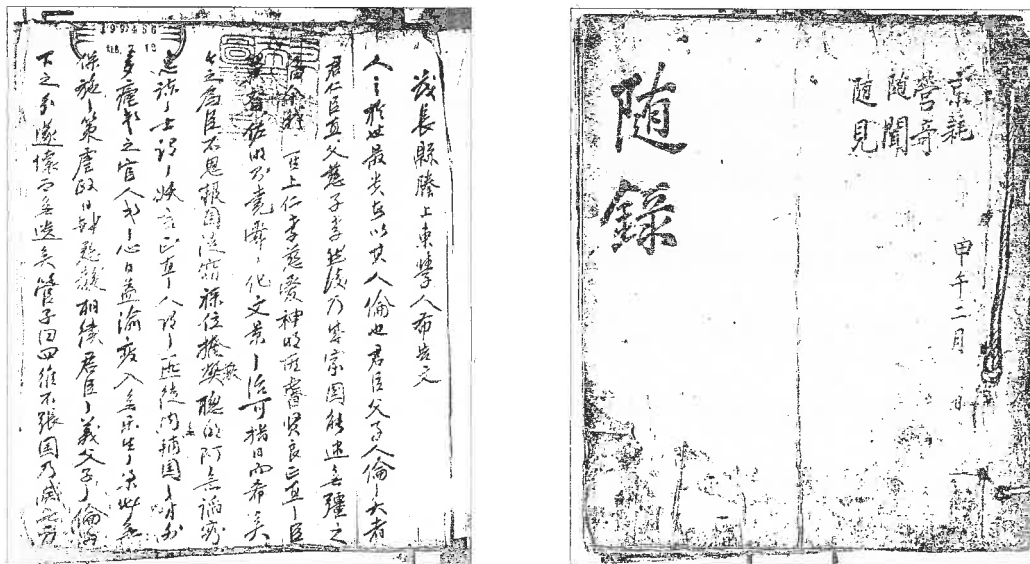
7) 진기흥, 「갑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를 찾아서」(프린트본, 1992년 3월 26일), 2쪽.

문서에는 1894년 음력 3월 16일경부터 '무장 동음치면 당산'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이 결집하여 3월 22일에는 흥덕의 사포로 진출하고, 다시 3월 23일에는 부안 줄포에 도착, 그리고 3월 24일에는 고부 관아를 점령하고 있는 사실이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8)

- 3월 16일: 동학도 茂長 冬音峙面 堂山에 집결하기 시작
- 18일: 堂山에 집결한 동학도 1천여 명에 이름
- 22일: 동학도 1천여 명 고창으로부터 와 흥덕의 砂浦에 도착 유숙함
- 23일: 동학도 3천여 명 부안 줄포 도착, 3천 5백상의 점심을 시킴
오후 6시경 줄포 출발하여 고부로 향함 오후 8시경 동학도 3천여 명 고부군 관아 점령
- 24일: 고부군 관아 점령한 동학도 군기고 타파, 화약고 실화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은 『수록』 내용은 1993년 4월 2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 특별취재팀9)의 '무장 당산마을' 현지답사 및 특집기사 보도10), 동년 5월에 간행된 전라북도 전주에서 간행되고 있던 『문화저널』 60호(1993년 5월호)에 실린 필자의 「전라도 무장현의 동학농민군 전면기포에 대하여」에서 전면적으로 소개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수록』 표제 및 첫머리에 실린 무장포고문>



8) 「갑오 3월 27일 계초」(『수록』, 4쪽)

9) 1993년 4월 2일에 무장기포의 현장인 '당산마을'을 찾은 특별취재팀 일행으로는 전북일보사 측에서 황이택, 김은정, 문경민, 김원용, 오병권 기자 등이 참가하였고, 학계에서는 박명규(당시 전북대), 필자(당시 영산원불교대), 이진영(당시 전북대 박사과정), 표영삼(당시 천도교 상주선도사) 등이 참가하였다.

10) 김은정 외, 「무장기포」(『동학농민혁명 100년』, 도서출판 나남, 1995), 155-159쪽.

6) 『石南歷史』

고부 조소리 앞 동네인 석지동 출신 박문규(朴文圭)는 전봉준의 서당 제자이다. 그는 후일 자신이 체험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회고록을 남겼다. 『석남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회고록에 의하면, 고부민란을 주도했던 전봉준 등은 무장으로 피신하여 무장(茂長)의 임내(林內)에서 기포하였다고 쓰고 있다.

7) 金邦善, 「甲午 九月 濟行日記」, (『林下遺稿』)

전북 부안 출신 유생인 김방선(1843~1901)이 남긴 일기 『갑오 구월 제행일기』에서도 전봉준이 고부민란 당시의 민군을 해산하고 나서 심복 부하 50명을 거느리고 무장의 손화중에게로 가서 동학도 5~6천명을 불러 모아 무장 인천(人川)에서 기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천(人川)은 위의 박문규의 회고록에 나오는 임내(林內)의 한자식 표기로 추측된다.

8) 「茂長東徒布告文」 (『羅巖隨錄』)

『나암수록』은 경상도 유생 박주대가 남긴 기록이다. 이 기록 속에도 무장포고문이 실려 있다. 1894년 음력 3월 20일 전라도 무장에서 포고된 문서가 멀리 경상도에까지 전해졌음을 증명해 주는 귀중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3. 무장대접주(茂長大接主) 손화중(孫化中) 관련 자료

1) 가계(家系)

1861(철종 12)년 정읍현 남일면 과교리(南一面 科橋里, 현 정읍시 과교동)에서 부친 손호열(孫浩烈)과 모친 평강 채씨(蔡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밀양이고,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겨 안전하게 보존했던 태인 출신 손홍록(孫弘祿)의 후예이다. 이름은 정식(正植)이고, 자가 화중(化中, 또는 華仲)이며, 호는 정읍의 옛 이름을 따 초산(楚山)이라 하였다. 비교적 유족한 집안에서 태어난 손화중은 어려서 이웃 마을인 음성리(蔭城里, 현 정읍시 상평동)로 이사하여 서당에서 한문 등을 배웠는데, 매우 총명하여 주위로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고 전한다. 12세 때 고흥 유씨(柳氏)와 결혼했다.¹¹⁾

2) 동학 입도(入道) 와 포덕

20대에 처남 유용수(柳龍洙)를 따라 십승지(十勝地)를 찾아 지리산 청학동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당시 경상도를 비롯하여 지리산 일대에 널리 전파되고 있던 동학(東學)을 만나 입도(入道)하게 된다. 동학에 입도한지 약 2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온 손화중은 고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포덕(布德; 동학의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다.

11) 이이화, 「녹두장군도 감탄한 조직력: 손화중」(『발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68-70쪽.

손화중의 포덕 활동은 정읍 농소리(農所里, 현 정읍시 농소동), 입암면 신면리(新綿里), 음성리 본가 등을 거쳐 이윽고 무장현(茂長縣)을 근거지로 삼으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무장현을 중심으로 한 포덕은 당초 읍내 김모(金某)의 집을 접소(接所; 포덕활동의 본부)로 삼아 전개되었으나, 얼마 후 무장면 덕림리 양실마을(德林里 兩谷, 현 고창군 성송면 괴치리 양실마을)로 옮겨 자리를 잡았다.

1993년 4월 2일, 필자를 포함한 전북일보(全北日報) 특별취재팀이 양실마을을 찾았을 때, 약 50여 호로 추정되는 농가가 자리하고 있는 마을 뒤쪽으로는 수령(樹齡)이 적어도 3백 년 이상으로 보이는 아름드리 노송(老松) 세 그루가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당시 마을에서 만났던 정태균(鄭太均, 당시 55세) 씨는 마을 뒤 소나무는 자신의 10대조 선조께서 심은 것이며, 매년 정월 대보름 때에는 동제(洞祭)인 천룡제(天龍祭)를 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같은 마을의 정용균(鄭鎔均, 당시 43세) 씨는 갑오년 당시 동학 도소(都所)는 현재 슬레이트집으로 된 마을 입구 농가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말을 조부(祖父)로부터 들었다고 전해주었다. 동학 도소가 된 그 집은 당시 손화중 대접주가 설득하여 동학으로 끌어들이는 이 모(李某)라는 부자의 집으로 규모는 작았지만 마당이 넓었다고 한다. 정태균 씨는 자신이 어렸을 때만 해도 동학(天道敎를 말함; 필자 주)을 믿는 가구가 20여 호에 이르렀었다고 증언함으로써, 양실마을이 동학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주었다. 이렇듯 양실마을에 도소를 둔 손화중 대접주의 포덕활동은 무장, 정읍, 고창, 부안은 물론이려니와 광주 나주 장성 담양에 이르기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개되기에 이른다.

3) 포덕활동의 특징

손화중의 동학 포덕활동의 특징은 김지하 시인이 붙인 ‘떠돌이 접주’라는 별명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손화중은 오늘날의 전라남북도 일대를 광범위하게 떠돌아다니며 이른바 ‘사고(事故)’가 난 동학 조직을 재건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떠돌이 접주’라는 것이다. 이처럼 ‘떠돌이 접주’라는 별명은 손화중이 동학의 ‘대 조직가’였음을 시사한다. ‘대 조직가’ 손화중의 면모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면,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東學史)』에 따르면, 1894년 3월 25일 부안 백산(白山)에서 개최된 동학농민군의 ‘백산대회(白山大會)’에는 약 8천여 명의 농민군이 집결하였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3천 5백의 농민군이 손화중 대접주가 이끄는 농민군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손화중 포(包)의 규모가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포덕 활동이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 준다.

갑오년 당시 손화중의 나이는 34세였다. 그는 전봉준보다 6세 연하였으려, 김개남(42세), 김덕명(50세), 최경선(36세) 등 다른 대접주와 비교해 보아도 최연소의 나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화중이 최대 규모의 농민군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동학의 일대 조직가(組織家)로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하

게 한다. 동학의 대조직가 손화중의 포덕 활동에 대해서는 일찍이 김지하 시인이 주목한 바 있는데¹²⁾, 여기에 그 핵심 내용을 인용한다.

한 마디로 남접(南接)의 핵심은 손화중 포(包)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손화중의 태인(泰仁)·무장(茂長) 포(包)는 단순히 지역적인 하나의 포를 넘어서 인근의 전라남북도 일대에 엄청난 영향을 가진 큰 봉새와 같은 조직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오지영의 『동학사』에 나오는 것처럼, 미륵불의 배꼽 밑에서 천비문서(天秘文書), 비결(秘訣)을 파내는 사건과 관련된 인근 민중들의 격동 중 손화중 밑의 소두목들이 보여준 행동과 그들의 거취 등에서도 명백히 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몇 년 간격으로 여러 포의 접주(接主)를 전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의 접주였다가 그 다음에는 저 포의 접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손화중이 떠돌이 접주, 즉 근거가 없는 다만 인물만 출중한 접주로서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동학이 포접제(包接制) 원리를 기초로 한 매우 유기적이고 세포론적인 조직활동을 벌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동학사나 해월 행장을 보면 당시 동학의 조직자들은 지목(指目)과 탄압을 받아 붕괴되는 지역조직, 위태롭고 취약한 조직, 그리고 사람이 간히고 흩어져버린 조직들을 수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조직의 특징 중의 하나는 연비제(聯臂制), 즉 알음알음, 친척, 가족, 특히나 통혼권에 의한 사돈간의 관계(‘처남포덕’이란 말에 주목할 것; 주)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위협이 닥칠 때는 바로 이런 연비를 끊어버리며 그와 연비된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사시키거나 피신시켜 버립니다. 동시에 간혀 있는 사람에 대해 서는 뇌물을 쓰든 포졸이나 옥졸들과의 교분을 터서 빼내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빨리 석방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일이 허다했다는 기록이 도처에 보입니다.

구명을 위한 빈번한 모금지시의 (사발)통문들과 주초어육을 금함(1892년 1월 25일자 어육주초를 금지하는 통문 등)으로써 저축된 돈을 석방자금으로 사용하는 술한 사례들(서장옥이 옥에 갇혔을 때 석방자금을 마련한 사례 참조)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중의 일반적인 인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안을 위한 긴급조치로서 동학이 우리 민중의 일반적인 생활태도와 세계에 대한 태도 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태도, 또는 공동체적인 생활태도 속에 들어 있는 기초적인 삶의 세계관, 산 사람들의 세계관, 생명의 세계관을 종교로 또는 사상으로 조직적인 공동체 삶으로 고양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간혀 있는 사람을 빼낼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연비를 끊어버리고 일단 피신시키는 이런 조직 활동은 고금동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탄력 있고 유기적이며 기동력 있는, 그리고 살아 생동하는 민중적 조직 운영의

12) 김지하, 「은적암기행」(『남녘땅 뱃노래』, 1985), 182-184쪽.

빛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¹³⁾

4) ‘석불비결(石佛秘訣) 탈취사건’과 손화중 포의 조직망

자신의 나이 20대, 즉 1880년대에 이미 동학에 입도하여 활발한 포덕 활동을 펼치고 있던 손화중은 1891년 3월에 공주 신평(薪坪; 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신평마을)에 은거하고 있던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을 찾아가 처음으로 지도를 받은 이래¹⁴⁾, 해월이 1891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라도 익산, 부안, 고부, 태인, 금구, 전주를 순회하며 순회포덕 활동을 전개할 때도 만나서 직접 지도를 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해월의 직접 지도를 받은 뒤 손화중의 포덕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민심도 점점 손화중에게로 쏠리기 시작했다. 특히 1892년은 임진왜란이 있어난 지 3백년이 되던 해로 흥흥해진 민심은 미륵불 출세나 정(鄭)도령 같은 진인(眞人) 출현을 대망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이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1892년 8월 이른바 손화중 포 관내에서 ‘석불비결 탈취사건’이 일어나기에 이른다.

‘석불비결 탈취사건’에 대한 전말은 오지영의 『동학사』(草稿本)를 비롯하여, 매천 황현(黃玗)의 『오하기문(梧下記聞)』, 남원(南原) 유생 김재홍의 『영상일기(嶺上日記)』, 한국 천주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뫼텔문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하 오지영의 『동학사』에 실려 있는 내용을 인용한다.¹⁵⁾

임진(1892년) 8월간에 전라도 무장현에서는 큰 지목이 일어났었다. 도내의 유수한 두 목은 물론이요 동학당이라고는 개인까지라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수백 명의 사람이 무장 옥(獄)에 때려 가두었었다. 사건의 내용은 무장 선운사 용문암(龍門庵) 석불(石佛) 배꼽 속에 있는 비록(秘錄)이라는 것을 동학당들이 훔쳐 갔다 하여 강도행위요 역적 모의라 하여 일으킨 사변이다. 이유는 그 석문(石門) 비록이라는 것이 3천년 전 검당 선사(黔堂 禪師)라는 도승이 있어 저작한 비록으로 그 속에 있는 말은 이러타고 하는 것이다. 이조 5백년 후에 이 석문을 여는 자 있을 것이요, 비록이 세상에 나오는 날은 그 나라가 망(亡)할 것이요 라 한 뒤 다시 흥(興)한다 운운하는 것이며, 동(同) 비록을 동학당 수백 명이 승야(乘夜) 돌입하여 동사(同寺) 승도들을 결박하여 놓고 석불의 배꼽을 떼고 그 비록을 빼 갔다는 것으로 관헌들은 이것을 기화로 강도 겸 역모로 몰아 대토벌을 시작한 것이며, 동학당 영수(領首) 중 강경중(姜敬重), 오지영(吳知泳), 고영숙(高永叔) 등 세 사람을 주모자로 몰아 사형에 처하여 옥에 뇌수(牢囚)하였는데, 각지에 있는 동학당들은 할 수 없이 폭력으로써 해결할 것을 밀의(密議)하여 수천 명의 도당으로 무장읍(茂長邑)을 에워싸고 일변(一邊) 관아를 습격한다

13) 김지하, 위의 책, 183-184쪽.

14) 『金洛喆歷史』(『韓國學資料叢書 9: 東學農民運動篇』) 및 『天道教會月報』 23, 1912년 6월호, 18쪽.

15) 오지영, 「동학사(초고본)」(『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1996), 437-439쪽.

위협하였다. 그리된 결과 무장 쉬(원님)는 도망하였고 죄수는 탈옥되었었다. 이로부터 전라도 내에서는 지목(指目)이 점점 더 확대하였다. 그러나 지목의 반면에 동학당의 수는 날로 늘어가는 영향이 현저히 드러났었다. 무장(茂長), 고창(高敞), 영광(靈光), 흥덕(興德), 고부(古阜), 부안(扶安), 정읍(井邑), 태인(泰仁), 전주(全州), 금구(金溝) 등 각지에서는 이민(吏民)을 물론하고 도(道, 東學을 말함; 인용자 주)에 안 드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¹⁶⁾

『동학사』(초고본)의 내용에 따르면, “동학당 수백 명이 승야 돌입하여 동사 승도들을 결박하여 놓고 석불의 배꼽을 때고 그 비록을 빼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수백 명의 동학당은 바로 손화중 포의 동학교도들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갑오년 이전부터 이미 상당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는 손화중 포의 규모와 그 조직력을 웅변(雄辯)해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석불비결 탈취사건’ 이후 전라도 일대에서는 날이 갈수록 조직화되어 가는 동학에 대한 관변 측의 ‘지목(指目)’이 확대되어 갔다고 한다.¹⁷⁾ 그러나 그 같은 지목에도 불구하고 “고창, 영광, 흥덕, 고부, 부안, 정읍, 태인, 전주, 금구 등 각지에서는 이민(吏民)을 물론하고 도(道, 동학)에 안 드는 자가 없을” 정도로 동학이 급속도로 퍼져가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손화중 포는 또한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서조차 호남의 5대 포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¹⁸⁾ 그 규모가 방대하였다. 이 같은 손화중 포의 조직 활동 및 포덕 활동의 거점이 바로 성동면 양실(星洞面 陽室; 현 고창군 성송면 피치리 양실마을; 주)이었던 것이다.¹⁹⁾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892년 8월에 일어난 ‘석불비결 탈취사건’은 전라도 일대에서 날로 그 명망이 높아가고 있던 손화중 대접주의 인물 됴됨이를 비롯하여, 손화중 포의 조직 활동 및 동학 포덕 활동의 추이(推移)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5) 전봉준과의 관계

1894년 1월 10일 약 1천여 명의 농민들을 이끌고 약 두 달여에 걸쳐 고부농민봉기(古阜農民蜂起; 종래는 古阜民亂이라 불렀다)를 주도했던 전봉준은 고부농민봉기를 진압하러 온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3월 13일경 손화중 대접주의 근거지인 무장으로 피신하기에 이른다.²¹⁾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손화중은 처음에 전봉준의 전면 봉기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전봉준의 끈질긴 설득에 따라 자신이 땀 흘려 조직해 놓은 약 4천 명의 포(包) 조직을 고스

16) 오지영, 위의 책, 437-438쪽.

17) 오지영, 위의 책, 438쪽 및 「朝家回通」(『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東學書』, 1985), 90쪽.

18)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한글본)』 1, 1986), 163쪽.

19)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62쪽.

20) 송기숙, 「한국설화에 나타난 민중혁명사상-선운사 미륵비결설화와 동학농민전쟁의 민중적 전개-」(『우리 시대 민족운동의 과제』, 한길사, 1986) 참조.

21) 「全臻準判決宣告書」(『韓國學報』 39, 1985), 187-188쪽.

란히 전봉준에게 넘겨주었다고 알려져 있다.²²⁾ 이 이야기는 손화중과 전봉준과의 ‘친밀한’ 관계를 짐작하게 해 주는 동시에, 손화중의 인물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갑오년 당시 손화중 대접주의 도소는 피치(槐峙; 현 고창군 성송면 피치리 양실마을)에 있었는데, 전봉준 장군은 피치로부터 멀지 않은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堂山; 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내 마을)을 근거지로 삼아 3월 16일경부터 전면봉기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20일경 「무장포고문(茂長布告文)」을 선포한 뒤, 3월 21일 전국적 차원의 봉기를 단행하기에 이른다. 전봉준이 1894년 1월의 고부농민봉기 좌절 이후, 3월 13일경 손화중 포의 관내인 무장현으로 옮겨와 전면 봉기를 단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²³⁾

6) 손화중의 최후에 관한 자료

1894년 3월 전봉준과 ‘혁명(革命)’을 위해 손을 잡은 손화중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내내, 그리고 ‘혁명’이 좌절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1895년 3월 말까지 끝까지 전봉준과 운명을 같이 한다.²⁴⁾ 뿐만 아니라 손화중은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손화중에 대한 해월 선생의 ‘깊은 신뢰’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사실 하나를 소개한다.

병신(丙申; 1896)년 (겨울) 하루는 (전라도로부터; 주) 손병규(孫炳奎), 홍계관(洪桂寬), 최익서(崔益瑞) 등 8인(이들 여덟 사람은 모두 손화중 포 관내의 접주로서 갑오년 혁명과정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이다; 주)이 찾아와서 (경상도 상주; 주) 높은 터 아래의 수용점(水春店)에 머물면서 아홉 개의 큰 접(大接=包; 주)을 설포(設包)한다고 말하는 고로 선생님(해월 선생; 주)께서 분부하시기를 ‘낙철(金洛喆 부안대접주; 주) 이 즉시 가서 권유하면 바로 구암(김연국; 주)을 내려보낼 터이니 잘 타일러서 함께 내려가라’고 하시는 고로, 분부를 받들고 내려가 8인과 함께 상주 갈항리(葛項里) 김치순(金致順)의 집으로 갔다. 날이 저물자 구암(김연국; 주) 장(丈)께서 박희인(朴熙寅)의 집으로부터 왕립하여 유숙하실 새, 구암께서 여덟 사람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두목이 되어 설포(設包)를 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손화중의 시체는 운상(運喪)했느냐’고 한 즉, 모두가 묵묵부답으로 앉아 있거늘, (구암께서) 또 크게 꾸짖으며 말씀하 시

22) 최현식, 「동학혁명의 향토사적 연구-갑오 동학혁명에 있어서 손화중의 역할을 중심으로-」(『韓國學論集』10,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86), 387쪽.

23) 무장에서 전면 봉기를 단행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1차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全琿準供草 初招問目」(『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8, 1996), 둘째 「全琿準判決宣告書」(『韓國學報』39, 1985), 셋째 「聚語」(앞의 叢書 2, 1996), 넷째 「東匪討錄」(앞의 叢書 6, 1996), 다섯째 「梧下記聞」(앞의 叢書 1, 1996), 여섯째 「뫼텔문서」(앞의 叢書 5, 1996), 일곱째 「隨錄」(앞의 叢書 5, 1996), 여덟째 「石南歷事」(전봉준 장군의 제자 박문규의 일기, 앞의 叢書 5, 1996), 아홉째 「林下遺稿」(부안 유생 김방선의 문집, 앞의 叢書 5, 1996) 열째 『나암수록』등이다.

24) 전봉준, 손화중, 최영창=경선 판결선고서」(『韓國學報』39, 1985) 참조.

기를 '두목 시체도 어디에 있는 줄 모르면서 두목이 되려 하니 참으로 무례한 이야기들이라'하시고, '즉시 (전라도로) 내려가서 화중의 시체를 운상하여 장례를 지내면 천사(天師)의 감응하는 덕으로 접내(接內)의 일은 자연 크게 드러날 것이다. 김모(김낙철 대접주; 주)와 함께 내려가라'하시는 고로 즉시 함께 내려왔다.²⁵⁾

위의 내용을 보면, 1896년 연말까지도 1895년 3월 말 서울에서 처형된 손화중의 시신(屍身)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대두목 손화중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으면서도 또다시 '설포(設包, 起包 즉 재봉기를 위한 동학 포의 재건활동; 필자주)'하려는 8인의 소두목에 대해 해월은 구암 김연국을 통해 "두목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 주제에 두목이 되려 한다"고 준엄한 꾸중을 내리고 있다. 이 같은 일화는 일찍이 수제자의 한 사람이던 서장옥(徐璋玉=徐仁周)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식사 때마다 서장옥을 위해 식고(食告)를 하고, 지목을 피해 강원도에서 충청도로 피신하는 길에 장대같은 비를 맞고도, 옥중에 있는 서장옥을 생각하여 이불을 덮지 않고 밤을 지새웠던 해월의 인간미를 다시금 엿볼 수 있는 내용임과 동시에 손화중에 대한 해월의 깊은 신뢰를 살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위에 열거한 자료를 포함하여 그 외의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자료들은 1998년에 이진영 선생(현재 국가기록원 연구관)의 치밀한 조사, 그리고 고창군청과 고창문화원 후원으로 『전라도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사료집』으로 집성, 편찬되었음을 부기해 둔다.(2014년 4월 17일)

25) 「김낙철역사」(『한국학자료총서 9: 동학농민운동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참조.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의 사료적 가치와 위상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의 사료적 가치와 위상

배 항 섭
성균관대 HK교수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1894년 3월 20 무장에서 발표된 <무장포고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변혁지향세력이 늦어도 1892년부터 구상하고 기도한 일련의 “반란” 계획과 그 실현을 위한 움직임의 최종 귀착점이었고, 이 날 발표된 <포고문>이야말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발발한 것이 아니었다. 멀리는 19세기 후반에 빈발한 민란은 더 큰 규모의 “반란”을 예고하는 것이었지만,²⁶⁾ 지배층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부패와 수탈은 도를 더해갔다. 동학은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의식과 민중들의 염원을 일정하게 반영하여 1860년에 창도되었다. 1880년대 중반부터 교세를 급격히 확산해나간 동학은 조직 면에서 민란의 국지성과 분산성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890년대에 들어 일군의 변혁지향세력은 이러한 분위기와 조건 속에서 <보국안민>을 위한 일대 변혁운동을 구상하고 기도하였다.

그것은 1892년 말부터 <교조신원운동> <척왜양운동>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민란>을 통해 중앙권력을 타도하기 위한 “반란” 내지 농민혁명이 꾸준히 구상되고 기도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학에 입도한 전봉준을 비롯한 변혁지향세력은 <교조신원운동> <척왜양운동>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민란> 과정에서 중앙권력을 타도하고 <보국안민>을 이루기 위한 일대 변혁운동을 기도하였으며, 그를 위해 <통문>이나 <창의문>을 내걸거나 각지에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구상과 기도는 번번히 좌절되었으며, 본격적인 전국적 항쟁, 곧 농민혁명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이 점에서 茂長起包는 그러한 노력의 귀결로서 발발한 것이며, <무장포고문>은 전국적인 항쟁, 곧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념비적 글이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무장기포와

26) “민란이 없는 고을이 없”을 정도로 민란이 빈발하는 1890년대에 들어와서는 “동서남북의 여러 읍들이 (난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필자) 서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李容珪, 「若史」 1893年 歲評).

<무장포고문>가 가진 의미가 제대로 밝혀진 것은 동학농민혁명이 해방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지 8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었다.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명이 그러하듯이 동학농민혁명의 발발 과정에 대한 이해 역시 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발발 경위와 관련하여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이 가진 의미가 분명히 밝혀지기까지의 연구과정을 일별한 후 무장기포 및 <무장포고문> 동학농민혁명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확인해보고자 한다.²⁷⁾

2. <무장기포>와 <포고문>에 대한 연구사 검토

동학농민혁명 당시부터 특히 관변측 자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고부봉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이 어려웠던 동학농민혁명 초기 일본측의 자료 역시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그 이후의 연구에도 이어졌다.

우선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오지영의 『동학사』는 그 이후의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지켰지만,²⁸⁾ 고부봉기와 제1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내용이 뒤섞여 정리되어 있으며, 일자를 비롯하여 사실관계 면에서도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된다.²⁹⁾ 『동학사』에 따르면 1894년 1월 3일 <호남창의소>라는 명의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3명의 이름을 병기한 <창의문>을 전국에 날리고 바로 3명의 거두가 농민군을 이끌고 일어나 고부성을 함락하였다고 한다. 1월 3일 전국에 날렸다는 창의문은 <무장포고문>과 동일하다. 고부함락 당시 농민군은 수천 명이었고, 고부성 함락 3일 후에는 고부 농민군과 손화중, 김개남포의 농민군을 합하여 8,000여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고부성을 함락하고 3일후인 1월 6일 백산에 진을치고 주둔하였으며, 이날 전봉준을 대장으로, 손화중과 김개남을 총관령으로 정한 후 다시 격문을 사망에 전하였다. 그것이 바로 『동학사』에만 나오는 다음과 같은 <격문>이다.

“檄文

우리가 義를 擧하여 此에 至함은 그 本意가 斷斷他에 있지 아니하고 蒼生을 塗炭의 中에서 건지고 國家를 磐石(磐泰山)의 우에다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貪虐한 官吏의 머리를 버히고 밖으로는 橫暴(強暴)한 強賊(盜賊)의 리를 驅逐하자 함이다. 兩班과 富豪의 앞에 苦痛을 받는 民衆들과 方伯과 守令의 밑에 屈辱을 받는 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冤恨이 깊은 자라. 조금도 躊躇치 말고 이 時刻으로

27) 고부봉기에서 무장기포로 이어지는 전개과정과 무장기포 및 <무장포고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 『1894년 농민전쟁연구』 2, 역사비평사, 1995 ;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2002 ;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전북사학회 편,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2011 등에서 살펴본 바 있다.

28) 이 책의 초고본은 1924년경에 쓰여졌으며, 1940년에 “歷史小說”이라는 부제를 달고 永昌書館에서 발간되었다.

29) 『동학사』는 해방 이후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오늘날의 동학농민혁명상을 구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책이지만, 오류가 적지 않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사료비판 작업이 요청된다.

일어사라. 萬一期會를 잃으면 後悔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甲午 正月 日 湖南信義大將所 (古阜)白山³⁰⁾

이 격문이 발표된 후 전라 각지에서 수많은 농민군들이 백산으로 몰려들었다. 이에 대응하여 전라감영에서는 1천여명의 영병을 백산으로 파견하였고, 농민군은 이들에게 패하여 부안과 고부 황토치로 이동하였으며, 추격해간 영병은 황토치에서 오히려 농민군에게 패하였다. 농민군은 황토현 승리 후 부안으로 갔다가 다시 백산으로 이동하였다.³¹⁾ 『승정원일기』를 부기하고 있지만, 구체적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오지영 본인의 회고와 촌로들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봉기의 일자와 전개양상,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 대한 기술에서 오류가 많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金庠基의 「동학과 동학란」도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에 대한 이해에서 역시 적지 않은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1931년 8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36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되었으며, 이후 1947년에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³²⁾ 이 책에서 김상기는 1894년 1월 14일 고부봉기가 일어났고, 16일에는 백산으로 이진하였다. 17일부터는 손화중이 농민군 수천명을 거느리고 태인, 부안 등지를 순회하며 폐정개혁 활동을 하였다. 한편 고부민들을 이끌고 백산에 주둔하던 전봉준은 여기서 “전선을 전국적으로 퍼려고” 격문을 날렸다고 하며, 『日淸戰史』를 인용하여 그 전문을 수록하고 있다. 격문의 내용은 <무장포고문>과 동일한 것이다. 이 격문에 격발되어 전라도 각지에서 농민군이 일어났고, 전봉준은 의연히 백산에 주둔하면서 “무장의 손화중, 남원의 김개남, 태인의 崔景華 등과 獠角의 기세를 취하며 도중을 조련하여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어 4월 7일 황토현전투로 서술을 이어가고 있다.³³⁾ 김상기는 鄉老들의 증언, 박은식의 『한국통사』, 『시천교역사』 등 교단측 자료, 『玄洋社社史』 등 일본자료를 인용하여 고부봉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초기 전개과정을 서술하였으나, 역시 자료의 不備에 따른 오류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학사』와 달리 이른바 “백산격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동학사』가 발간되기 전에 연재되었던 만큼 『동학사』는 전혀 참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30) ()안은 초고본의 내용이다.

31) 『동학사』, 영창서관, 1940, 107-119쪽

32) 김상기, 『동학과 동학란』(서울, 대성출판사, 1947). 이 책은 1975년 같은 제목으로 일부 수정하여 재간행되었다[김상기, 『동학과 동학란』(서울, 한국일보사, 1975)]. 「동아일보」에 연재된 내용과 대조해본 결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이 글에서는 1975년의 재간행본과 「동아일보」를 동시에 인용하기로 한다. 『동학과 동학란』의 연구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이영호, 「동학과 농민전쟁 연구의 원형 - 東學과 東學亂(김상기, 동아일보, 1931)-」, 『역사와 현실』 11, 1994 참조. 김상기는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란’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동학란은 일반이 아는 바와 같이 동학교문의 종교운동이었던 것보다 일대 민중운동이었으며 사회혁신운동이었다”고 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종교운동이 아니라 민중운동, 사회혁신운동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동아일보」, 1931년 9월 12일 ; 김상기, 앞의 책, 1975, 84쪽). 「동아일보」 연재 마지막분에서도 “본문에서는 갑오동학운동을 편의상 관용어인 동학란으로 썼슴”을 밝히고 있다(「동아일보」, 1931년 10월 9일).

33) 김상기, 앞의 책, 114-120쪽

보인다.

이후 「취어」와 「양호초토등록」 등 중요한 자료들을 발굴하여 정리한 『동학란기록』(상, 하)이 1959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되었다. 특히 『동학란기록』(상)에는 ‘茂長東學輩布告文’이라는 제목 하에 <무장포고문>의 전문이 실려 있었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에 주목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었다.

1979년에 발간된 신복룡의 『동학당연구』은 오지영의 동학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초기 전개과정을 『동학사』와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³⁵⁾ 최현식이 1980년에 쓴 『갑오동학혁명사』는 고부봉기의 발발일자(1894년 1월 10일), 백산 移陣을 비롯하여 신임군수 박원명의 회유에 의해 해산하게 되기까지의 전개과정 등 고부봉기에 대해서는 과제승이 쓴 「전봉준공초」, 최영년의 「동도문변」 등 『동학란기록』(1959)에 수록된 자료와 「고부민요일기」, 장봉선의 「전봉준실기」, 「사발통문」 등을 인용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였다.³⁶⁾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발발경위에 대해서는 전봉준과 손화중이 “도인들이 쫓기할 것을 호소하고 1894년 3월 21일 교주 최시형의 탄신일을 기하여 동학교도와 다수의 농민들을 고부 백산에 모이게 하니 3월 봉기의 백산기포이다”라고 하였다. 격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고 있지만, 오지영의 『동학사』와 마찬가지로 이때 <무장포고문>을 발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초기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전봉준을 대장으로, 손화중과 김개남을 총영관으로 정한 다음 다시 격문을 사방에 보냈다고 하여 『동학사』를 인용하여 그와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격문도 『동학사』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1959년에 ‘茂長東學輩布告文’이라는 제목 하에 <무장포고문>의 전문이 실린 자료집이 발간되었음에도 1980년대 초반까지도 대부분의 연구들은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는 『동학란기록』(상)에 실린 ‘茂長東學輩布告文’이 “회덕지방에 둔취해 있던 농민군을 剿捕하였다”는 충청감영의 電文에 이어 부기되어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배치된 날자가 그 자료에 주목하거나, 나아가 <무장포고문>의 발포시기와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1973년에 쓴 한우근의 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이 무장에서 시작되었고, 「취어」[『동학란기록』(상)] 등에 나오는 ‘茂長東學輩布告文’이 무장에서 창의를 할 때 발포된 포고문임을 처음으로 밝힌 연구는 慎鏞廈의 「甲午農民戰爭의 第1次農民戰爭」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³⁷⁾ 그러나 한우근은 이미 1973년에 쓴 글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무장에서 시작되었고, 또 무장에서 <무장포고문>이 발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³⁸⁾ 그는 고부봉기 이후 역졸들의 눈을 피

34) 「聚語」, 『동학란기록』(상)140-141쪽 ; 『총서』 2, 124-125쪽

35) 신복룡, 『동학당연구』, 탐구당, 1979, 61-63쪽

36)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금강출판사, 1980, 33-53쪽

37) 신용하, 「甲午農民戰爭의 第1次農民戰爭」, 『韓國學報』 40, 1985

38) 이 내용은 배항섭, 「한우근의 東學農民運動 연구가 남긴 학문적 유산」, 『진단학보』 120, 2014(근간)에 게재된 글에서 다루고 있다.

해 도망·은신한 전봉준의 행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의 黨與인 김개남·손화중·최경선 등과 모의하여 일대 봉기를 감행할 결심을 하였다. 전봉준 등은 먼저 茂長縣에서 모여 민간에 포고하여 이번 거사는 보국안민을 위한 의거임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동학접주 전봉준의 창의에 의해서 근방 10여읍이 이에 항응하여 일시에 봉기하게 되어 불과 10여일 간에 수만명이 호응하게 된 것이다. 동학과 일반 농민과의 결합은 이때부터 시작된 셈이다. 전봉준은 동학농민군 총영수로 앞장을 서게 되었다.

(중략) 4월 17일(음력 3월 12일-필자) 동학교도 수천명이 小杖을 들고 머리에 백건을 두르고 집결하여 吏家를 燒燬했고, 이에 뒤이어 고부·흥덕·고창·부안·금구·태인 등 각처에서 동학농민군이 들고 일어났다. 그리하여 전봉준은 동지 김개남 등과 모의하여 4월말(음력 3월 하순)에 부근 일대의 동학농민군을 고부 백산에 집결시켰다.³⁹⁾

날자면에서 오류가 있지만, 농민군이 먼저 무장에 모여 민간에 “보국안민을 위한 의거임을 천명”하는 “포고”를 발표하였다는 사실, 거기서 동학과 일반 농민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전봉준이 농민군의 총영수로 앞장서게 되었다는 사실, 4월 17일 무장에서 농민군 수천명이 이서배들의 집을 燒燬하였다는 사실, 이후 고부와 흥덕 고창 등지에서 농민군이 일어난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확히 밝히고 있다. 물론 한우근은 <포고문>이라고 쓰지 않았고, <포고문>의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장포고문>의 내용은 이미 김상기의 『동학과 동학란』(1947)에도 전문이 번역되어 인용되고 있다.⁴⁰⁾ 뿐만 아니라 한우근도 편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바, 1959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동학란기록』(상)에는 ‘茂長東學輩布告文’이라는 제목 하에 <무장포고문>의 전문이 실려 있었다.⁴¹⁾ 또 한우근이 참조한 「오하기문」에도 “大會茂長縣布告民間其文曰” 다음에 <포고문> 전문이 실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역시 <포고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⁴²⁾ 따라서 “김개남·손화중·최경선 등과 모의하여 일대 봉기를 감행할 결심을 하였다. 전봉준 등은 먼저 茂長縣에서 모여 민간에 포고하여 이번 거사는 보국안민을 위한 의거임을 천명했다”는 구절은 동학농민혁명이 사실상 무장에서 시작되었고, 거기서 <무장포고문>이 발표된 사실을 최초로 밝힌 연구자가 다름 아닌 한우근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글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발간한 『東學과 農民蜂起』에서는 농민군의 동선 이해에 혼선을 보이고 있다. “(중략)” 앞부분의 내용은 그대로지만, 그 뒷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있다.

그의 黨與인 김기범·손화중·최경선 등과 모의하여 일대 봉기를 감행할 결심을 하였다.

39) 한우근, 「동학농민봉기」,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7 :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개혁』, 1973, 99-101쪽.

40) 김상기, 『동학과 동학란』, 춘추문고, 1975, 117-118쪽

41) 「聚語」, 『동학란기록』(상)140-141쪽 ; 『총서』 2, 124-125쪽

42) 이 글에서 그가 인용한 자료는 『동학란기록』, 『일성록』, 오지영의 『동학사』, 황현의 『오하기문』, 정교의 『대한계년사』, 『일본공사관기록』, 김상기의 『동학과 동학란』 등이다.

전봉준 등은 먼저 茂長驛에서 모여 민간에 포고하고 이번의 거사는 보국안민을 위한 의거임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동학점주 전봉준의 창의에 의해서 근방 10여읍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일시에 봉기하게 되자 불과 10여일 만에 수만명이 동원되었다. 동학교도와 일반 농민과의 결합은 이때부터 시작된 셈이다. 그리하여 전봉준은 동학농민군의 총영수로 일대 봉기의 앞장을 서게 되었다.

(중략)4월 17일(음력 3월 12일-필자) 동학교도 수천명이 전봉준 영도 하에 머리에 백건을 두르고 小杖을 들고 고부 郡底에 집결하여, 먼저 吏胥들의 집을 불태우는 데서부터 그들의 봉기가 시작되었다. 고부에 뒤이어 흥덕·고창·부안·금구·태인 등 각처에서 동학농민군이 들고 일어났다. 그리하여 전봉준은 동지 김개남 등과 모의하여 4월말(음력 3월 하순)에 부근 일대의 동학농민군을 고부 백산에 집결시켰다.⁴³⁾

앞의 글에서는 이서배에 대한 공격이 무장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했으나, 여기서는 고부로 바뀌어 있다. 또 무장에서 “포고”를 발포하였으며, 거기서 동학과 일반 농민과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전봉준이 농민군의 총영수로 앞장을 서게 되었다고 해 놓고, 또 다시 “고부 郡底에 집결하여, 먼저 吏胥들의 집을 불태우는 데서부터 그들의 봉기가 시작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동학농민전쟁 발발 초기과정에 대한 이해에 혼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자료의 미비나 충분한 분석이 부족한 탓으로 초기 봉기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명확한 이해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여 1973년의 서술 내용이나, 1983년의 책에 기술된 “중략” 이전의 부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 한우근의 「동학농민봉기」(1973)는 동학농민혁명이 무장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힌 사실상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⁴⁾

이후 「동비토록」, 「전봉준 판결선고서 원본」, 「오하기문」을 주요자료로 활용한 신용하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이 무장에서 시작되었고, <포고문>역시 무장에서 발포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었음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이 대거 발굴, 정리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무장에서 시작되었고, 무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무장포고문>이 발포되었다는 사실이 거듭하여 확인되었고,⁴⁵⁾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러한 사실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다.

43) 한우근, 『東學과 農民蜂起』, 一潮閣, 1983, 101-102쪽

44) 더구나 신용하는 <무장포고문>의 발포시기에 대해 “종래 학계에서는 무장창의문이 농민군이 고부에 서의 제일차농민전쟁 기포 후에 전주를 향하여 흥덕→고창→무장→영광→함평→장성→전주로 가는 도중에 <무장>에 이르렀을 때 포고한 창의문으로 해석하고, 여기에 위치를 설해 왔다”고 하였으나(慎鏞廈, 「甲午農民戰爭의 第1次農民戰爭」, 『韓國學報』 40, 1985, 115쪽) 이는 오류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우근은 1983년의 책에서도 <포고문>의 발포시기와 장소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있다.

45) 이이화 「집중분재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① 봉기-전주성 점령」, 『역사비평』 9, 1989 ; 「갑오농민전쟁연구 : 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세대박사학위논문, 1991(『정창렬저작집 1 : 갑오농민전쟁』, 선인, 2014에 재수록) ; 배항섭, 「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 『1894년 농민전쟁연구』 2, 역사비평사, 1995(『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2002에 수정하여 수록) 등 참조

3.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 관련 자료들

동학농민혁명은 고부민란이 끝난 후 고부를 빠져나간 전봉준이 무장의 손화중과 연합하면서 시작되었다. 무장지역과 고부 등 인근 지역에서 무장으로 몰려든 농민군 4,000여명은 1894년 3월 20일⁴⁶⁾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동학농민혁명에 임하는 농민군의 입장, 동학농민혁명의 이념, 목표 등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글인 만큼 길더라도 全文을 제시한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바로 사람에게 인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君臣父子는 바로 인륜의 요체로 임금은 어질고 신하된 자는 정직해야 하며, 아버지는 자애롭고 아들은 효성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가정과 국가가 이루어지고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인자하고 효성스러우며 자애롭고, 총명한 정신과 뛰어난 예지를 겸비하신 분으로 만약 賢良하고 정직한 신하가 보필한다면 堯舜의 德化와 漢나라 文帝와 景帝의 政治를 날짜를 손꼽으며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하된 자들은 報國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갓 벼슬자리만 탐내며 (국왕의) 총명을 가린 채 아침을 일삼고 있다. 忠諫하는 말을 妖言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匪徒라 일컫는다. 조정에는 국가를 도울만한 인재가 없고 조정 밖에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만 득실대고 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나날이 변하여, 집에서는 즐겁게 종사할 생업이 없고 나가서는 제 한 몸 간수할 방책이 없건만 가혹한 정치는 날로 심해져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분별이 이미 무너져 남아 있는 것이 없다(인륜의 요체인 군신부자의 윤리 붕괴-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어렵다는 동학경전). 옛날 管子는 “四維[禮義廉恥]가 실행되지 않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고 하였다.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욱 심한 점이 있다(유교적 질서의 바탕이 되는 4유의 붕괴). 公卿 이하 方伯守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급함은 생각하지 않고, 한낱 자신을 살찌우고 제 집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마치 재물이 생기는 길로 여기며, 과거 보는 것은 온통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허다한 돈과 뇌물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창고를 채우고 있다. 국가의 채무는 늘어 가는데 그것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여 음탕하게 노는 데 거리낌이 없다. 팔도가 죽음의 빛이요 어육이 되고 만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지만, 저 가혹한 지방관들의 탐욕과 학정은 더욱 그러함이 있으니 어찌 백성들이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질서를 지탱해 나가야 될 책무가 있는 공경대부 이하 방백 수령의 책무방기-도덕과 신분의 배리, 인정의 붕괴). 백성들은 국가의 근본으로 근본이 위축되면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데, 보국안민의 방법은 생각지 않고 시골에 저택이나 지으며 오직 저 혼자만 잘 될 생각으로 벼슬자리만 엿보는 것이 어찌 올바른 도리이겠는가(민본의 위기-사족의 책무방기). 우리들은 비록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농사지어 먹고 임금이 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러한 위급함을 坐視할 수 없어 팔도가 마음을 합치고 億兆가 詢議하여 지금 義의 깃발을 치켜들고 ‘保國安民’을 생사의 맹서로 삼았다. 금일 이러한 광경은 놀랄만한 것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여 모두 태평성대를 추원하여 다 함께 임금의 교화를 누릴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다.⁴⁷⁾

46) 3월 20일에 일어난 무장기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사실에 대해서는 慎鏞廈, 「甲午農民戰爭의 第1次農民戰爭」, 『韓國學報』 40, 1985 참조.

47) <포고문>이 실린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隨錄」 茂長縣贍上東學人布告文,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이하 『총서』) 5, 157~159쪽 ; 「茂長布告文」, 『東學亂記錄』 上, 142~143쪽 ; 「梧下記聞」, 『총서』 1, 52~54쪽 ; 「

이외에도 茂長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또는 이와 함께 <무장포고문>이 발표되었음을 알려주는 주요 자료는 아래와 같다.

『전봉준공초』, 초초문목 :

문초; 작년 3월에 고부에서 기포해서 전주로 향하는 사이에 몇 고을을 경유하였으며 몇 차례 접전하였느냐?

공술; 경유한 고을은 무장에서 고부를 경유해서 태인 금구를 거쳐, 전주에 도달하려다가 감영의 군사 1만여 명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으로 가서 고부에 다시 돌아와 감영 군사와 접전하였습니다.

문초; 그 뒤에는 어느 곳으로 향하였느냐?

공술; 정읍으로 [가서] 고창 무장 함평을 경유해 장성에 이르러 경군과 접전하였습니다.

문초; 전주에 들어간 것은 언제이며 해산은 언제인가?

공술; 작년 4월 26-7일 사이에 전주에 들어가고 5월 초순 5-6일 사이에 해산하였습니다. (『동학사상자료집』 1, 322-323쪽)

「오하기문」: 고부에서 민란이 일어나자 사람들에게 의해 우두머리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미처 그의 간교한 모의가 드러나기도 전에 난민들이 흩어져 버렸으므로 봉준 또한 급히 도망쳐 숨었다. 얼마 후 수색이 심해지자 봉준은 피할 수 없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 일당 김기범 손화중 최경선 등과 화를 복으로 바꾸어 준다는 꾀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선동하여 그들을 끼고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는 큰 소리로 “동학이 하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케 할 것이다(保國安民). 우리는 살상과 약탈을 하지 않을 것이나, 오직 탐관오리만을 처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말에 솔깃하여 우도 10여 읍이 일시에 봉기하여 열흘 정도에 수만명이 모여들었고 동학이 난민과 어우러진 것이 이때부터였다. 봉준 등은 무장(茂長)에서 큰 집회를 열고 그들의 생각을 민간에 널리 알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琿準等大會茂長縣布告民間 其文曰)(「오하기문」, 『총서』 1, 52쪽; 『번역 오하기문』, 72쪽).

「동비토록」: 東學輩本邑布告文 茂長, 제일 앞에 전문수록, 말미에 “초5일 戌刻電報”(『한국민중운동사자료대계』: 1894년의 농민전쟁편 1』, 303-304쪽)

東學文書 茂長縣東學布告文, 『총서』 5, 136쪽; 「東匪討錄」 東學輩布告文,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 : 1894年の農民戰爭篇』(이하 생략), 303~304쪽; 「東學史」 倡義文, 『東學思想資料集』 2(이하 생략), 464~465쪽; 「東學史」(초고본), 창의문(內譯), 『총서』 1(이하 생략), 452~453쪽; 「羅巖隨錄」 茂長東徒布告文, 『총서』 2, 382-283쪽; 「朝鮮暴動實記」, 『총서』 25, 205-206쪽 참조. 『東學史』에는 「포고문」이 아니라 「倡義文」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포고문이 발표된 일자도 갑오년 정월로 잘못 기록되어 있으며, 또 기사의 위치도 고부민란에 앞서 발표된 것으로 배치되어 있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또 말미에 「창의문」의 발표 주체를 湖南倡義所로 표기하였으며, 全琿準 孫和中 金開南의 이름이 대표로 병기되어 있다. 그러나 무장기포는 전봉준과 손화중의 세력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으며, 김개남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隨錄」：茂長縣騰上東學人布告文, 전문수록, 제일 앞머리(3월 22일 도착한 무장현감 조명호 첩정 앞) (『총서』 5, 157-159쪽)

「聚語」：茂長東學輩布告文, 전문 수록(『총서』 2, 124-125쪽)

「東徒問辨」：“이 때 전주인 전봉준, 고부인 김개남 등이 一嘯屯集하니 경각에 만여 명이 되었다. 3월 21일 一面의 白旗를 세우고 東徒大將 네자를 크게 쓰고 군읍의 병기를 약탈하였다”(『동학란기록』 상, 15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그런데 급보가 날아 왔으니, 때는 3월 20일 이날 흥덕리의 장꾼들이 돌아와서 이르기를 동학군 수만명이 무장의 굴치를 넘어서 흥덕을 지났다고 한다. 다음날은 고창에 모여 점차 서쪽으로 올라와, 일부 군대는 정읍에서 고부로 들어가고 일부 군대는 사포를 지나 줄포로 왔다”(57쪽)

「석남역사」：“그후 장터로 돌아와서 해산을 한 후에 전대장은 본읍 東學密道 부하 수십명을 영솔하고 不知去處에 헤어졌다. (중략) 인심이 소동하고 流言이 흉흉하더니 (4월) 초 2일에 동학군이 茂長 林內 안 산골 속에서 聚重하와 무장 고창 고부 3, 4군을 滅城하여 군기를 탈취해 가지고”(『총서』 5, 14쪽)

「東學文書」：全羅道東學輩布告文 茂長縣, 전문수록(『총서』 5, 136쪽)

「羅巖隨錄」：茂長東徒布告文, 전문수록(『총서』 2, 382-383쪽)

「朝鮮暴動實記」：<賊徒의 격문> “이때에 이르러 賊勢가 全道에 떨치게 된 바, 彼等에게 모이지 않는 지방이 없기에 이루었지만, 다만 무장 부근에서 결합이 稍堅해짐에 따라, 彼等이 例의 說客을 파견하여 도당을 모으고 또한 아래와 같은 격문을 발하여 四方의 贊同을 구하였다.” 이어서 <무장포고문> 전문 수록(『총서』 25, 205-206쪽 참조.

「甲午事記」, “고부민요의 피수 전명숙이 一境의 민인을 거느리고 백산에 주둔한 지 수개월되었다. 이에 정읍의 손화중과 함께 동도 수천 명을 불러 일으키고 仁川江으로부터 고창읍에 모이였다. 동학의 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총서』 5, 39쪽)

「전봉준판결선고서 원본」：고부민란을 해산하였으나 안핵사 이용태가 “동학당”을 살륙하자 “이에 피고가 다시 其徒를 규합하여 모병하되 불응자는 不忠不義한 사람이니 반드시 벌을 주리라 하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其徒 4천명을 얻어가지고 각기 소유한 흥기를 가지고 양식을 그 지방민에게 徵捧하여 是年 4월 상순 分에 피고가

친히 其徒를 영솔하여 전라도 무장에서 일어나 고부 태인 원평 금구 등처를 갈새 (하략)

「金洛鳳履歷」(전봉준이) 민요를 야기하다가 事不如意하여 茂長郡 孫化中을 運動하여”

「林下遺稿」: “신임 군수 박원명이 정일서 김도삼을 청하여 禍福으로 재삼 권유하여 중민을 해산하자 전명숙은 일이 不成함을 알고 포군 50명을 거느리고 무장 동학인 손화중에게 往投하였다.(중략) 명숙은 화중에게 가서 동학배 5-6천명을 초취하여 茂長 人川 으로부터 出來하였다. 旗幟에는 <輔國安民倡義> 6자를 크게 쓰고...무장 고창 홍덕 고부 정읍 태인 등읍을 연달아 함락하고” (『총서』 5, 21-22쪽)

「金興燮의 회고 : 동학란과 전봉준 장군」(『중앙일보』, 1965년 11월 5일)

“그후 1894년 2월 19일엔 당시 冬音면 新村리의 金웅집에서 다시 모여 행동준비를 구체화했는데, 여기 모인 사람은 전기 孫 金 鄭 宋씨(孫化仲, 金聲七, 鄭伯賢, 宋文洙-필자) 외에도 金開男, 徐仁周, 林天瑞, 金德明, 姜敬重, 金永達, 高永淑, 崔載衡 등 각읍의 접주들이었다. 金웅의 부친 金聲七 접주는 그 준비공작금으로 쌀 50섬을 내놓았다. 全琿準 장군을 都率大將으로 한 東學軍은 대장기엔 五色緞으로 ‘五萬年受運’이라 새겼고 각포 군기는 다섯 가지 색으로 나누어 나타났으며 ‘궁乙章’을 붙이고 월여에 걸쳐 준비, 3월 15일엔 부대를 편성, 5일 동안 훈련을 마친 다음 21일부터 각지에 격문을 보내는 등 행동을 개시하자 그 동안 피신 중이던 수많은 교도들이 떼지어 모여들었다.”

4.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의 세계사적 의미

1) <포고문>을 통한 민중운동의 목적 표현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무장포고문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세 혹은 중세말기에 발발한 대규모 민중운동에서 자신들의 봉기 동기나 목표를 이처럼 명확하게 천명하고 시작한 사례는 좀처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⁴⁸⁾

19세기 중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민중운동인 태평천국운동에서도 지도자 홍수전은 1851년 1월 11월 진토편(金田)에서 배상제회 교도들을 모아 놓고 태평천국의 성립을 선언하였고, 동시에 그 스스로 천왕임을 선포하였다. 태평천국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이날을 태평천국운동의 시작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기의(起義)가 시작된 이날 태평천국군에서는 특별한 다른 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이념이나 창조

48)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전북사학회 편,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2011에 서술했던 내용들이다.

에 대한 호소력 있는 비판론이 마련되거나 발표되지도 않았다.⁴⁹⁾

1381년에 일어난 영국의 와트타일러 난은 10만여 명의 농민군이 봉기한 중세 영국 최대의 민중운동이었다. 그러나 운동은 곳곳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터져 나왔으며, 그것이 모여 대규모 반란으로 비화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봉기가 시작되었을 때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선언문이나 포고문은 없었다. 전개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조건이 수차례 제시되었을 따름이다.⁵⁰⁾ 사정은 독일농민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토마스 뮌처는 평소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하였지만, 그의 영향을 받아 각 지역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을 때는 역시 그들의 봉기 목적이나 현 사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글을 발표한 사례가 없다.⁵¹⁾ 이는 서구 중세의 수많은 천년왕국운동 등 대규모 민중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⁵²⁾

이 점에서 무장포고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매우 조직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되었으며, 자신들의 봉기 목적, 현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등이 이처럼 당당하고 명확하게 표현된 글은 세계사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소중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2) 인도주의와 생명존중 사상

한편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무장포고문을 발표함과 아울러 기포의 목표와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四大名義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① 不殺人 不殺物 ② 忠孝雙全 濟世安民 ③ 逐滅倭夷 澄清聖道 ④ 驅兵入京 盡滅權貴 大振紀綱立定名分 以從聖訓 등이었다. 이어 농민군들은 '보국안민창의'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장도에 올랐다.⁵³⁾ 여기에는 먼저 농민군 지도부는 인명을 존중하는 인도주의적 정신이 드러나 있으며, 유교적 충효사상이 강조되어 있다. 일본의 침략과 지배질서와 기강을 훼손하는 중앙 집권세력을 축멸함으로써 성도를 분명히 하고 성훈을 따르자는, 곧 유교이념에 입각한 이상사회를 추구하고 있었음이 잘 집약되어 있다.

특히 제1항에 보이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인도주의적 정신은 농민군들이 영광에 주

49) 조병한 편저, 『태평천국과 중국의 농민운동』, 인간, 1981, 73·221쪽; 김성찬, 「태평천국과 염군」, 『강좌중국사V』, 1989, 91쪽; 조너선 D. 스펜스, 양희웅 옮김, 『신의 아들: 홍수전과 태평천국』, 아산, 2006, 227쪽.

50) J. F. C. 헤리슨, 『영국민중사』, 소나무, 1984.

51) 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혁명사 2부작』, 소나무, 1988.

52) Mollat, Michel, Wolff, Philippe, 瀬原義生 譯, 1996, 『ヨーロッパ中世末期の民衆運動: 青い爪, ジャック, そしてチオンビ』, ミネルヴァ書房; Paul Freedman, 1999, Images of the Medieval Peasant, Stanford University Press; 노만 콘 지음, 김승환 옮김, 『천년왕국운동사』, 한국신학연구소, 1993.

53) 『大韓季年史』, 『총서』 4, 363쪽; 『時事新報』 明治 27年 6月 8日, 『총서』 22, 292~293쪽·295쪽. 「大韓季年史」에는 4대 명의가 3월 25일에 내걸린 것으로 나와 있으나,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내용의 전후 관계를 살펴볼 때 이용태의 만행으로 전봉준이 5, 6만 명의 농민군을 불러모아 봉기하였고 이때 4대 명의를 내걸었다고 하여 농민군이 처음에 일어날 때, 곧 무장기포시에 4대 명의를 내건 것으로 말하고 있다. 『時事新報』에도 농민군이 거병 당시에 내건 것으로 되어 있다.

둔하던 4월 12-16일 사이에 발포한 <對敵時 約束 4項> <12條 戒軍號令>에서 보이는 나문과 배려의 정신과 함께⁵⁴⁾ 동학농민혁명에서 보이는 민중의식이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광에 주둔할 무렵에는 농민군의 수는 무장기포 당시의 3배 이상인 1만 2,000명-1만 4,000명에 이르렀다. 또 이 무렵부터 농민군 가운데는 지배층의 탐묵과 학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담한 자들 이외에도 불평을 품은 자, 동학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어 입당한 자, 각지의 무뢰배 등이 몰려들기 시작했다.⁵⁵⁾ 이에 따라 농민군 지도부는 영광에서 농민군의 행동을 단속하기 위해 두 종류의 행동준칙을 내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對敵時 約束 4項>

1. 每於對敵之時 兵不血刀而勝者 爲首功(매번 대적할 때 병사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고의 공으로 삼는다).
2. 雖不得已戰 切勿傷命 爲貴(부득이 전투를 하더라도 절대로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3. 每於行進所過之時 切勿害人物(매번 행진하여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치지 않는다)
4. 孝悌忠信人所居之村 十里內勿爲屯住(孝·悌·忠·信한 사람이 사는 촌락으로부터 10리 이내에는 주둔하지 않는다)

<12條 戒軍號令>

1. 降者受待(항복한 자는 받아들여 대우해준다)
2. 困者救濟(곤경에 처한 자는 구제해준다)

54) 4개항의 약속과 12개조의 戒軍號令이 나온 시점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3월 29일~4월 4일 사이(鄭昌烈, 『甲午農民戰爭研究』,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140쪽), 혹은 3월 25일 <4個名義>를 게시하였다는 鄭喬의 「大韓季年史」를 인용하여 3월 27일경 개척된 것으로 이해한 이른바 “백산대회” 때(愼鏞廈, 『동학과 갑오 농민전쟁연구』, 1993, 154쪽)인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朝鮮暴動實記』에는 ‘靈光賊營의 軍令狀과 戒軍令’이라는 소제목 하에 소개되어 있다(『총서』 25, 204쪽). 또 『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는 영광으로 간 농민군의 동태를 보고하는 4월 16일자 전라감사의 전보 내용과 함께 소개되어 있고(『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9쪽), 『東匪討錄』에도 4월 21일에 4월 19일 도착한 영광군수의 보고내용에 의거하여 농민군의 영광 공략 소식을 정부에 전하는 假都事의 전보에 이어 <偵探記>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다(『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894年の 農民戰爭編 1』, 319~320쪽). 『東京朝日新聞』에도 농민군이 한양호를 공격한 기사와 영광의 농민군에 대한 기사와 함께 실고 있고(『東京朝日新聞』, 明治 27年 6月 3日, 『총서』 22, 352쪽), 『甲午朝鮮內亂始末』에는 이러한 군호와 계문이 내려진 시점에 농민군이 무장 영광 지역에 주둔해 있다고 하였다(『총서』 25, 120쪽). 다만 『續陰晴史』에는 4월 27일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사실에 이어 소개되고 있다(『續陰晴史』 上, 311쪽).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4개항의 약속과 12개조의 戒軍號令은 농민군이 영광을 점령하는 무렵 농민군의 수가 크게 늘어나자 내부 규율을 강화할 필요에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萬報朝』에는 이 가운데 4개 항의 약속이 무장에서 정한 규율인 듯이 밝히고 있으나, 이 때 농민군이 매 20리마다 1천여명씩 주둔해 있었다고 한 기사로 미루어 볼 때 역시 영광에서 정한 사실을 오묘한 것으로 보인다(『萬報朝』, 明治 27年 6月 5日, 397-398쪽).

55) 제1차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배항섭,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 양상」, 『동학연구』 11, 2002 참조

3. 貪者逐之(탐욕한 관리는 쫓아낸다)
4. 順者敬服(공순한 사람에게는 敬服한다)
5. 走者勿追(도망가는 자는 추격하지 않는다)
6. 飢者饋之(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먹인다)
7. 奸猾息之(간활한 자는 그 짓을 못하게 한다)
8. 貧者賑恤(가난한 자는 진휼한다)
9. 不忠除之(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10. 逆者曉諭(거역하는 자에게는 효유한다)
11. 病者給藥(병든 자에게는 약을 준다)
12. 不孝殺之(불효한 자는 죽인다)

위의 조항은 우리들이 舉行하는 근본이다.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地獄에 가들 것이다.⁵⁶⁾

<약속 4항>에는 인명을 중시하는 내용(1, 2항)이 주목되며, <12개조 계군호령>에는 부정하고 탐욕한 자들에 대한 경계(3, 7, 9, 10),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인본주의적 배려(1, 2, 5, 6, 8, 11)가 두드러진다. <12개조 계군호령> 말미에는 “위의 조항은 우리들이 舉行하는 근본이다.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地獄에 가들 것이다.”고 부기하여 행동 규율에 대한 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상대적으로 “과격하” 행동을 보였던 김개남도 1894년 8월 25일 휘하의 농민군 한 명이 오수찰방의 사무실에 들어가 은가락지를 빼앗은 사실이 확인되자 즉시 목을 베어 막대기에 매달고 행렬 앞에 세워 농민군을 경계하였다.⁵⁷⁾ 이러한 사실은 농민군의 규율이 엄격하게 지켜졌음을 보여준다.

<4대명의>의 제1항과 <약속 4항>의 1, 2항 등에서 보이는 생명존중, 인도주의적 사상은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동학농민군은 다른 나라의 유사한 민중운동과 비교할 때 인명을 함부로 살상하지 않았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10월 17일 김개남이 백성들에게 성을 탈취하라 부추겼으며, 운봉의 박봉양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남원의 김개남 부대를 협공하자고 밀계를 꾸민던 남원 부사 이용헌을 전주에서 체포하여 처단한 사실,⁵⁸⁾ 4월 25일 전주를 향해 진군하던 농민군들이 원평에서 국왕의 효유문을 가지고 온 이효응과 배은환을 살해한 사실⁵⁹⁾ 이외에는 관리들이나 양반지주들을 직접 처단한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56) 『續陰晴史』 上, 311쪽; 『東匪討錄』, 319~320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9쪽; 『朝鮮暴動實記』, 『총서』 25, 202쪽 및 204쪽; 『東京朝日新聞』, 明治 27年 6月 3日, 『총서』 22, 352쪽; 『万朝報』, 明治 27年 6月 5日, 397~398쪽; 『大阪朝日新聞』, 明治 27年 6月 3日, 『총서』 23, 17쪽; 『內亂實記 朝鮮事件』, 『총서』 25, 191쪽. 『甲午朝鮮內亂始末』에는 동도대장의 계획 가운데 2개조가 소개되어 있다(『총서』 25, 120쪽). 또 『大阪朝日新聞』과 『万朝報』에서는 12개조의 계군호령이 12개의 軍旗에 쓰여 있다고 하였다.

57) 『梧下記聞』 『叢書』 1, 210쪽

58) 『梧下記聞』 『叢書』 1, 257쪽

59) 『兩湖招討謄錄』 『叢書』 6, 61쪽

사실은 중국의 태평천국운동이나 서구 중세의 민중운동과 크게 비교되는 점이다.⁶⁰⁾

태평천국군이 起義한 날은 1850년 1월 11일이었다.⁶¹⁾ 배상제회 교도들은 홍수전의 38세 생일이기도 한 이날 금전촌 犀牛嶺 古營盤에 모여 “삼가 만수기의를 경축하여 태평천국 원년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起義 후 홍수전은 <軍紀五條>를 반포하였다. 그 내용은 ①명령준수 ②남녀를 구분한다 ③군령을 추호라도 범하지 않는다 ④공정한 마음으로 화목하며 수령과의 약속을 준수한다 ⑤합심협력하여 싸움에서 퇴각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태평천국군도 특히 1853년 3월 남경을 점령하러 전까지는 엄격한 군기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군기오조>에도 인명 살상을 경계하는 내용은 없다. 실제로 태평천국군 지도부에서도 일반 백성에 대해서는 상하게 하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관병에 대해서는 남기지 말고 죽일 것을 지시하였다.⁶²⁾ 나아가 남경을 점령한 이후에는 내분이 일어나면서 태평천국군 상호 간에도 많은 살상행위가 일어났다. 1856년 9월 東王 楊秀清이 홍수전의 군력을 넘보다 살해당한 뒤 동왕의 친족과 부하들 수천에서 2만여명이 학살되었다.⁶³⁾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농민군의 규율 위반에 대해서도 “지옥에 가둔다”는 상징적 경계를 내거는 등 인명을 중시하였던 동학농민군의 행동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다.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은 1358년 5월 28일 기욤 카를(Guillaume Carle)이라는 자를 수장으로 급작스럽게 일어난 북부 프랑스 농민들의 봉기였다. ‘자크리’란 ‘자크들의 무리’라는 뜻이고 ‘자크(Jacques)’란 그냥 일반적인 농민들을 일컫는 말이다. 즉 이는 당시에 농민봉기를 경멸적으로 지칭하던 용어였다. 이들이 결코 영주제에 신음하던 농노들이나 심각한 식량위기에 처해있던 극빈 계층의 농민들이 아니었고, 이들은 흑사병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감소 사태를 견뎌낸 자들로 죽은 자들이 남겨 놓은 많은 토지들을 인수하여 거대한 농장을 이루었던 부농(laboureur)들이었다. 사회적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경제적 주체로 떠오르고 있던 이들에게 국가의 과도한 조세와 귀족들의 차별적 대우는 큰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구체적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5월 말 보베 지방에 일어난 농민운동은 삼시간에 북부 프랑스 농민들의 동조를 획득한 이들은 무능하고 타락한 귀족들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국왕의 충직한 신하로서 국왕과 조국을 보호할 것을 대의로 내세웠다. 6월 초까지 계속된 자크리의 난에서 농민들은 “국왕 만세” 또는 왕실의 전통적인 전투구호인 “몽주아 생드니(Montjoie saint Denis)”를 외치며 북부지역 귀족들의 저택을 습격하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⁶⁴⁾

60) 아래의 사례들은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역사교과서 서술내용의 새로운 모색-동아시아적 시각과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62, 2012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61) 조병한 편지, 『태평천국과 중국의 농민운동』, 인간, 1981, 73쪽, 221쪽 ; 김성찬, 「태평천국과 염군」, 『강좌중국사V』, 1989, 91쪽 ; 조너선 D. 스펜스, 양휘웅 옮김, 『신의 아들 : 홍수전과 태평천국』, 이산, 2006, 227쪽

62) 趙矢元·馮興盛 주편, 중국사연구회 옮김, 『중국근대사』, 청년사, 1990, 54-57쪽

63) 조너선 . 스펜스, 양휘웅 옮김, 『신의 아들 : 홍수전과 태평천국』, 이산, 2006, 391-394쪽 ; 김성찬, 「태평천국과 염군」, 『강좌중국사V』, 1989, 117쪽

64) 홍용진, 「국가형성과 민중봉기 1:에티엔 마르셀의 봉기와 자크리의 난」, 『웹진 民研』, 2014년 4월

1381년 영국의 와트 타일러난이 일어난 초기 에식스주에서는 주민들이 왕립위원 브렌트우드(Brentwood)의 명령을 받고 주민들을 체포하려는 민소재판소의 서기 3명을 그 자리에서 처단하였다. 또 뒤따라 파견된 지방배심원 3명의 수급을 빼어 장대에 매달고 시위를 하였고, 여러 점령지역에서 플랑드르인 등 주민들을 살해하였다.⁶⁵⁾ 독일농민전쟁 시기에도 농민군은 체포된 귀족과 귀족의 병사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하기도 하였다.⁶⁶⁾ 중세 유럽 여러 곳에서 일어난 천년왕국 운동에서도 반란군은 선민의식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이나 상대편을 살상하거나 노약자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며 즐거워하기도 했다.⁶⁷⁾ 역시 동학농민군이 인명 살해를 엄격히 경계하고 삼가한 사실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농민군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한 관리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그들 스스로 직접 징치하기도 했다. 또한 농민군들은 <폐정개혁안 27개조>등을 통해 조세제도나 탐관오리의 처벌 등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좀 더 낮은 차원, 혹은 일상적 생활 속에서 어떤 세상을 추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약속 4항>과 <12개조 계군호령>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약속 4항>과 <12개조 계군호령>은 기본적으로 농민군의 행동준칙으로 삼기 위해 제시된 것이지만, 그것은 억압받고 가난하게 살아온 농민군들의 호소이자 요구였고, 그들이 지향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의 한 모습이기도 했다. 그 핵심적 내용은 부정부패한 자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나눔과 배려’의 실천을 통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질서의 회복에 있었으며, 그 바탕에는 인도주의적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이 강하게 깔려있었다고 생각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장봉기는 길게는 19세기 이래 빈발해온 민중운동의 총귀결이었고, 짧게는 1892년 말부터 변혁지향세력이 기도한 중앙권력의 타도와 정부 개혁을 위한 ‘거병’ 노력(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그리고 1893년 말 전봉준이 주도하여 마련한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봉기의 결실이었다.

동학과 결합한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는 이미 척왜양운동 시기부터 중앙권력 타도를 목표로 한 거사를 수차례나 기도하였다. 사발통문 거사계획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동학교단의 움직임을 추동하기보다는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적 조직을 기반으로 삼아 농민혁명을 기도하였다. 또 전면에 내세운 구호도 척왜양이 아니라 민중적 이해를 수용한 ‘반봉건’을 내세웠다. 그것은 무엇보다 무장포고문

통권 36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http://rikszine.korea.ac.kr/>)

65) J. F. C. 해리슨, 『영국민중사』, 소나무, 1984, 82쪽

66) 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혁명사 2부작』, 소나무, 1988, 103쪽, 130쪽

67) 노만 콘 지음, 김승환 옮김, 『천년왕국운동사』, 한국신학연구소, 1993, 299-300, 337, 357-359쪽

에 잘 나타나 있다.

전봉준은 고부봉기를 통해 전국적 항쟁을 기도하였으나, 손화중 등 인근 지도자들과의 사전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고부봉기는 3월 초순에 들어 해산되고 말았다. 그 이후의 사정은 전봉준실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 전봉준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무장의 손화중을 찾아가서 “구원을 청”하였고, 이에 대해 손화중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고는 있었지만 결국 전봉준과 뜻을 합쳐 농민혁명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다.

그 결과 고을 단위를 뛰어넘어 전라도 각 지역에서 농민혁명을 수행할 의식을 일정하게 갖춘 농민군이 무장으로 모였으며, 마침내 3월 20일 전라도 무장에서 포고문을 발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 점에서 무장은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곳이었으며, 무장에서 발표된 <포고문>은 지배층의 탐욕과 부정과 부패로 고통받던 민중의 분노,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민중의 열망이 터져 나온 커다란 울림이었다. 또 <포고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 민중운동사에 보기 드문 것이며, 그와 함께 제시된 인도주의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강령 역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른 나라의 민중운동에서는 보기 드문, 동학농민혁명만이 보여주는 독자적인 정신의 표현이었다.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관련
자료 검토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관련 자료 검토

- 사료 · 구전 · 증언을 중심으로 -

이 병 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1. 들어가는 말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러한 무장기포지는 마땅히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하는 유적지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장기포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무장기포와 관련된 사료, 그리고 구전과 증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무장기포지와 인근지역 출신 동학농민군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무장기포(茂長起包)의 의미

1) 무장기포의 의미

무장기포의 의미는 전봉준과 손화중이 이끄는 동학농민군들이 1894년 3월 20일 전라도 무장 당산마을에서 무장포고문을 발표하고 포 조직을 일으켜 봉기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무장은 지명 즉 장소를 설명하고 있고 기포는 이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무장의 현재 행정구역은 고창군 무장면으로 고창군에 속하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시대에는 무장현으로 고창현이나 흥덕현과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고창현, 무장현, 흥덕현이 합쳐져서 고창군이 되었다. 따라서 전봉준과 손화중이 포고문을 발표하고 봉기를 준비한 당산마을이 1894년에는 무장현에 속하였기 때문에 장소적 의미를 무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포(起包)는 포 조직을 일으켰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포(包)는 동학조직을 말한다. 동학의 조직은 접(接)과 포(包)로 설명된다. 접은 동학조직의 기본단위로서 교도들 사이의 인맥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한 접의 규모는 대략 가구 수로 35~75호였다고 한다. 이를 4인 가구로 환산해보면 140명~300명으로 이 같은 접의 책임자가 접주(接主)였다. 접이 늘어나 한 사람의 접주가 여러 개의 접을 거느리는 대접주(大接主)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들 대접주가 관할하는 중간조직이 바로 포(包)였던 것이다. 그런데 손화중이 대접주로서 고창, 무장, 흥덕, 영광, 함평, 장성, 정읍 등 당시 전라도 서부의 대부분의 동학조직을 관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 사건을 '무장기포'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2) 무장기포(茂長起包)의 전개

고부를 떠난 전봉준은 무장현의 손화중을 찾아갔다. 전봉준은 손화중에게 전국적인 봉기를 일으키자고 설득하였다. 전봉준의 설득이 계속되자, 손화중은 마침내 봉기를 결정지었다. 고부봉기 단계에서 도모했던 확대된 봉기가 실현되는 순간이자, 농민혁명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드는 대목이었다. 1894년 3월 16일 무장현 동음치면 구암리 당산마을 일대에 손화중 휘하의 동학농민군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3일 동안 죽창을 만들고 민가에서 무기류를 빼앗아 오는가 하면, 동학 반대하는 자들을 잡아다 처벌하고 군량미를 확보하였다. 이 같은 행동에 당황한 무장관아에서는 동학농민군을 설득하여 해산 시키려 하였다. 그러자 동학농민군은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통보로 관아의 지시를 일축하였다. 무장관아의 힘으로는 수천명에 달하는 동학농민군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다. 준비를 마친 동학농민군은 3월 20일 무장현 당산에서 무장포고문을 발표하였다.

3) 무장포고문에 담긴 의미

무장포고문의 발표는 전봉준과 손화중이 전국적인 농민항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조선전역에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의미이다. 본격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포고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방향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포고문을 실제 누가 작성했는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생각이 반영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전봉준은 이 포고문을 통해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매우 설득력 있게 당시 조선의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포고문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관점은 1894년 당시 조선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전봉준은 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 무장포고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에게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君臣)과 부자(父子)는 가장 큰 인륜이다. 임금에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아버지가 자애롭고 자식이 효성스러운 뒤에야 집과 나라를 이루어 무궁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자애롭고 총명하며 슬기롭다. 현명하고 어질며 정직한 신하가 보좌하여 정치를 돕는다면 요순(堯舜)의 교화와 한(漢)나라 문제(文帝)와 경제(景帝)의 치세를 해를 보는 것처럼(분명하게)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하된 자들은 나라에 보답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갓 봉록과 지위만을 도둑질해 차지하고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첨과 아양을 부려 충성된 선비의 간언을 요망한 말이라 하고 정직한 신하를 비도(匪徒)라 일컫는다. 그리

하여 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만 득실대니 인민人民들의 마음은 날로 더욱 나쁘게 변해 가고 있다. 안으로는 삶의 즐거움이 없고 밖으로 제 한몫 간수할 방책이 없다. 학정(虐政)은 날로 더해지고 원성이 이어지며,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분별이 드디어 무너져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관자(管子)가 말하기를 “예의염치(禮義廉恥)가 배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망한다”고 했는데, 바야흐로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욱 심하다. 공경(公卿)으로부터 방백수령(方伯守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살찌우고 제 집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만 생각하고, 벼슬아치를 뽑는 일을 재물이 생기는 길로 여기며, 과거 보는 장소를 온통 사고파는 저자거리로 만들었다. 허다한 재화와 뇌물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창고를 채우고 있다. 나라에는 쌓인 부채가 있는데도 갚을 방도를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란하게 노는 데 거리낌이 없어서 온 나라가 어륙이 되고 만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수령들이 재물을 탐하고 사납게 구는 것이 까닭이 있는 것이니, 어찌 백성들이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약해지면 나라가 멸망한다. 그런데도 보국안민의 방책을 생각지 않고 시골에 저택이나 짓고 오직 저 혼자서 살 길만 도모하면서 벼슬자리만 도적질하니 어찌 올바른 이치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초야(草野)의 유민(遺民)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농사지어 먹고 임금이 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니 가히 앉아서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온나라가 마음을 같이 하고 억조창생(億兆蒼生)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이제 의기를 들어 ‘보국안민(輔國安民)’으로서 죽고 사는 맹세를 하노니, 오늘 이러한 광경은 비록 놀랄만한 것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움직이지 말고 각자 자신의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여 모두 태평성대를 축원하고 다 함께 성군(聖君)의 교화를 누릴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노라.

3. 무장기포 관련 사료

- 「林下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21~22쪽

新郡守朴源明 請鄭一西金道三 誘以禍福 解散衆民 全明叔 知事 不成 率砲五十名 往投茂長東學人孫化中

“새로운 군수(郡守) 박원명(朴源明)이 정일서·김도삼에게 청하여 화복(禍福)을 일러주고 중민(衆民)의 해산을 권하였다. 전명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포군(砲軍) 50명을 이끌고 무장(茂長)의 동학인(東學人) 손화중(孫化中)의 무리에게 합류하였다.”

▪ 『梧下記聞』,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권, 52쪽

久染東學惑於妖讖常鬱鬱思奮及古阜民亂衆推爲狀頭 未及逞其姦謀而衆遽散 故琫準亦倉卒逃隱已而 巡按交索之甚急 琫準懼無以免 乃與其黨金箕範孫化中崔敬善等 誘民轉禍爲福之計 挾之俱反倡言 東學代天理物保國安民 不殺掠 惟貪官汚吏不赦 愚民響應右沿一帶十餘邑 一時蜂起 旬日間至數萬人 東學之與亂民合自此始 **琫準等大會茂長縣 布告民間**其文曰 人之於世最貴者 以其有人倫而 君臣父子人倫之大也 (중략)**三月二十日以後** 自古阜始連犯泰仁興德高敞金溝扶安金堤茂長 諸邑守宰皆走 吏胥軍校隨而四散 未見賊而邑底先空

"그는(전봉준)은 오래 전부터 동학에 물들어 있었으며, 요사한 지식에 미혹되어 늘 울분에 차 있었는데, 고부에서 민란이 일어나자 사람들에게 의해 우두머리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미처 그의 간교한 모의가 드러나기도 전에 난민들이 흩어져 버렸으므로 봉준 또한 급히 도망쳐 숨었다. 얼마 후 수색이 심해지자 봉준은 피할 수 없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 일당 김기범, 손화중, 최경선 등과 화를 복으로 바꾸어준다는 꾀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선동하여 그들을 끼고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는 큰소리로 "동학이 하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케 할 것이다. 우리는 살상과 약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탐관오리만을 처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말에 솔깃하여 우도 일대 10여 읍이 일시에 봉기하여 열흘 정도에 수만명이 모여들었고 동학이 난민과 함께 어우러진 것이 이때부터였다. **봉준 등은 무장에서 큰 집회를 열고 그들의 생각을 민간에 널리 알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과 부자는 인륜의 근본이다. (중략) **3월 20일 이후** 고부에서 시작하여 태인, 흥덕, 고창, 금구, 부안, 김제, 무장을 차례로 침범하였는데, 이곳을 지키던 수령들은 모두 달아났고 아전과 군교들도 뒤따라 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적은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고을이 텅 비어버렸다.

▪ 『전라도고부민요』,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57쪽

"3월 초1일 민군 수백명이 줄포의 세고를 파괴하였다. 그들이 어떻게 하여 양식에 궁하지 아니하였는가를 들어보니, 조병갑이 소득한 미곡을 전부 탈취하여 이에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2개월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등불이 장차 꺼지려는데 빛이 한 번 반짝함을 본다. 그들의 형상이 실로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고 3월 11일, 12일 경 나는 생각하였다. 한번 성했다 한번 멸했다 하는 소문속에 그들은 3월 13일 완전히 해산하였다. 도장은 처자를 거느리고 도망가고 나머지 무리는 체포되었고 줄개들은 귀농하여 누구나 끝마무리된 것을 축하하였다.

그런데 급보가 하늘에서 날아왔으니 때는 **3월 20일 이날 덕흥리 장꾼이 돌아와 말하기를 동학군 수만 명이 무장의 굴치를 넘어 덕흥리를 지났다고 했다.**

다음날에는 고창에 모여 점차 서쪽으로 올라와 일부 군대는 정읍에서 고부로 들어가고 일부는 사포로 돌아왔다.”

▪ 「甲午事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권, 39쪽

古阜民擾魁首全明叔 率一境民人 留白山數月 乃與井邑孫和中 喚起東徒數千 自仁川江 會于高敞邑 東學之亂自此始焉 其魁報恩崔濟愚崔時亨云 而濟愚已被國斬 時亨逃之 厥類之倡起 又自時亨始

“고부(古阜) 민란의 괴수(魁首) 전명숙(全明叔)이 한 지역의 백성들을 이끌고 수 개월을 백산(白山)에 머물렀다. 이에 정읍(井邑)의 손화중(孫和中)이 동도(東徒) 수천 명을 환기시켜 인천강(仁川江)으로 나가 고창읍(高敞邑)에 모였는데, 동학란(東學亂)이 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괴수는 보은(報恩)의 최제우(崔濟愚)와 최시형(崔時亨)이라 한다. 제우는 이미 나라에 붙잡혀 참수를 당하였지만 시형은 달아났으니 그 무리가 일어난 것도 시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 「隨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59쪽

「茂長縣監 趙命鎬의 報告」

今月二十二日到付 ‘茂長縣監趙命鎬 呈內今十六日 本縣冬音峙面 堂山地 何許亂類輩幾千名 聚黨逼溜 從跡殊常是如 傳說浪籍 故出送 伶俐吏校 密密搜探 則此非本邑之民 舉皆他邑之民 而聚接于該村民人家 稱以東學徒是乎所 始也不滿百餘名 自十六日以十八日 數日之間 或夜或晝 徒四方來聚者 將爲千餘名 皆聚於該村前野 所住之處 相接靈法兩邑之界是乎所 彼輩幾百名 往于法聖陳良面龍峴里 竹田所在處 刈竹爲鎗 是遣 或派送各處村民家 如干所存 鳥銃與鑊器鎌鋸等物 一一搜奪以去是遣 渠所謂毀 其學反其學之人及曾前有嫌者 一竝捉去毆之打之是遣 其隣石橋村安德必家 有何許人質置米是加噓 白米六十餘石亦爲奪去 壞毀其家 該村宋京洙家產 又爲打破是乎所 以是而隣面搔擾平民渙散也 究彼輩之所爲 誠一變怪 其在近民 不得不禁止 故一邊遣吏鄉 據理曉諭 一邊送令飾 期圖解散 而彼輩之堂場氣勢 將近數千 以若邑力莫可退斥 而彼徒謂以日間移居他境云云矣 卽接彼徒呈稟則 亦當不日出境云是乎乃 內忽之跡殊常之類 莫可盡測 故使之吏更加密探則 或分隊或散處 將有下次東裝之機 而所向之處 從難的探所問之設既如是 故爲先據實諜報 亦爲白乎於

“3월 22일에 접수된 무장현감 조명호(趙命鎬)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 16일 무장현 동읍치면 당산리에 수상한 무리들 수천 명이 모여 머물고 있는데, 그 종적이 이상하여 여러 가지 풍설이 돌고 있으므로 영리한 이속·장교를 비밀리에 보내 수탐한즉, 이들은 이 고을 사람이 아니고 거개가 다른 고을 사람인데 이 마을 민가에 모였으며, 말하기를 이들은 동학도라 하온바 처음에는 1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16일부터 18일 사이에 혹은 낮에 혹은 밤을 타고 사망에서 모여들어 거의 1,000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당산마을 앞의 들판에 진을 쳤는데 이곳은 영광 법성고을과의 접경지대이다. 이들 가운데 수백 명은 법성 진랑면 용현리(현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용현마을)의 대밭에 가서 대를 베어 죽창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각 마을의 민가에 있는 엽총과 팽이 낫 가래 따위의 기물을 찾아 빼앗아갔으며, 그들은 소위 동학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과 과거에 감정이 좋지 않던 사람을 일일이 잡아다 구타하였다. 그리고 이웃마을 석교촌(石橋村)에 사는 안덕필(安德必)의 집을 습격하여 다른 사람이 맡겨 놓은 백미 60여 석을 뺏고 그 집을 부숴으며, 같은 마을 송경수(宋京洙)의 집 살림을 역시 때려 부수었다. 이 때문에 인접한 각 면이 시끄러워지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들의 소행이 참으로 해괴하나 양민과 어울려 있으므로 강력한 수단으로 금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속과 고을의 덕망가를 보내 이치를 따져가며 타이르고, 한편으로는 공문을 보내 해산을 권하기도 하였으나 그 무리들 당장의 기세는 장차 수천 명에 이르니 관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들의 말로는 일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 하고, 또 그 도당이 보내온 서명에도 역시 불일간 이 고을을 떠나겠다 하오나, 매우 수상한 무리들인지라 그 참뜻을 측량할 길이 없는 고로 다시 이속으로 하여금 은밀히 염탐한즉, 대오를 짜기도 하고 다시 흩어지기도 하며 차차 장비를 정리하는 기색도 보이나 어느 곳을 향할지는 탐지하기가 어렵다. 알아낸 바가 이와 같으므로 우선 확인된 정보를 위와 같이 보고한다.“

▪ 吳知泳, 『東學史』, p121~122

“창의문이 한번 세상에 떨어지자 백성들의 서성거리는 소리는 참 굉장하였다. 옳다. 이제는 잘 되었다. 천리가 어찌 무심하라, 이놈의 세상은 얼른 망해야 한다. 망할 것은 망해 버리고 새 세상이 나와야 한다. 민정은 극도로恐慌한 중 촌촌마다 집집마다 모여 앉으면 이 말이다. (중략) 장래의 세상은 동학군의 세상이 된다는 등 일반의 인심은 모두 동학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 『隨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p179

同日到付扶安縣監李喆和牒呈 內今月二十三日巳時量 不知何許人十餘名 頭着黃巾 手執鐵鎗竹鎗 來到本縣苗浦 午飯千五百床知委排定矣 追後數三千名 或騎或步 各持銃鎗來聚苗浦射亭 而旗號段書 仁義禮智信 或書順天光州 行色殊常殊甚驚駭是如白乎旆 鱗次到付 該縣監牒呈內 本縣苗浦來會之類 同日酉時量 自該浦離發將向古阜是加爲白乎旆

“그날 3월 23일 도착한 부안현감 이철화(李喆和)의 보고서(牒呈) 내용에, “이달 23일 사시(巳時, 오전 9~11시) 무렵에 어느 곳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십여 명이 머리에 황건을 쓰고 손에는 쇠로 된 창과 죽창을 잡고 본 현의 흥덕 출포에 도착하였는데, 점심 밥 3,500상을 배정하여 마련해 달라고 알려 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2,000~3,000명이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각각 총과 창을 가지고 와서 출포의 사정(射亭)에 모였는데, 깃발의 구호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

(信)을 쓰거나 혹은 순천(順天), 광주(光州)라고 썼습니다. 행색이 수상하여 심히 놀라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잇달아 도착한 부안현의 보고 내용에, “부안현 줄포에 와서 모인 무리들은 3월 23일 유시(酉時, 오후 5~7시) 무렵에 줄포에서 출발하여 고부로 향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大阪朝日新聞」,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3, p11~13
“무장의 부민들에게서 군량을 징수한 뒤 보국안민창의(輔國安民倡義)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고부로 향하였다.”

- 「隨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p161~162
 二十四日到付興德縣公兄文狀馳告內今月二十二日午時量不知何許人數千名舉旗鳴鼓吹囉放砲或騎或步自高敞界來到本縣沙後浦止宿其翌直向于扶安苗浦是加爲白乎旆

“3월 24일 도착한 흥덕현(興德縣) 공형이 문장(文狀)으로 급히 보고한 내용에, “이달 22일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 무렵에 어느 곳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수천 명이 깃발을 들고 북치며 나팔을 불고 총을 쏘았는데,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고창의 경계에서부터 본 현의 사후포(沙後浦)에 이르러 머물러서 숙박하였고, 다음 날 3월 23일 곧바로 부안(扶安) 줄포(苗浦)를 향하여 갔다”고 합니다.

4. 무장기포 관련 구전 및 증언

1) 참여자 정덕수

- 정덕수는 1894년 3월에 무장 구수내에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여 기포한 후 4월말 전주 완산 용머리고개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한다.
- 정덕수가 동학농민군으로 전주 용머리전투에 참여해서 전사한 후 함께 싸웠던 崔氏가 돌아오는 길로 정덕수의 집에 들러 그 부인(朴氏, 生卒未詳)에게 전사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崔氏는 고창군 공음면 구수내에 살았던 정덕수의 친구이다.
- 崔氏가 정덕수의 용머리전투 참전과 전사 소식을 전해준 뒤 마을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고 한다.
- 정덕수의 부인은 아들 정대봉(1887~1971)에게 아버지가 용머리전투에서 전사한 사실을 전해주었으며, 손자인 정옥차는 조부의 참여내용에 대해 약 7~8세 경부터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 차례 들어왔다고 한다.
- 이문성(1932년생,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군유리)은 정옥차의 마을 친구로서, 어릴 적 정옥차의 집에 놀러 왔을 때 정옥차의 부친이 “옥차의 할아버지가 동학란에 참여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려주었다고 한다.
- 정옥차의 부인(1940년생)인 이강선도 시어머니 안천복(고창안씨, 1885~?)에게 “5월 2일 시할아버지가 총을 둘러메고 나가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 참여자 정덕수가 1894년 고창군 공음면 구수내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할 때

참여해서 전주 완산 용머리고개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했다는 증언은 고창기포에 관한 기록과 완산전투의 실상과 부합되는 내용이다.

- 동학농민혁명 이전에 정덕수의 고향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에는 동래정씨가 약 30가구 정도 살았으나 동학농민군이 진압된 이후 누가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는지 말을 하지 않고 숨겨왔다고 한다.
- 집안에서 정덕수의 시신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였고, 뒤에 밤나무로 위패를 만들어 부인의 묘에 합장하였다고 한다.
- 정덕수의 아들은 7세 때 아버지를 잃고 배우지 못하여 평생을 가난하게 고생하며 살았다고 한다.(조사일자 : 2006. 7. 28)

2) 참여자 문만호

- 문만호는 1894년 3월 동학도로서 무장기포에 참여하였고, 공주방면전투 후 귀가하였으나 관군을 피해 1895년 행방을 감추었다고 한다.
- 문만호의 손자 문정섭은 18살 때(1953년경) 부친(문상문, 1887~1967)에게 “아버지는 뭘 하셨길래 공과금도 형님하고 형수한테 타가게 하느냐.”며 대든 적이 있었는데, 부친이 하는 말이 “지금은 다 얘기 못하지만, 고창에서 살 때 너희 조부(文萬浩)의 일로 인해 고창에서 살지 못하고 만주로 도망 다니느라 그랬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커서 얘기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 문정섭이 군대생활을 하던 30살 때(1965년경) 부친에게 조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문정섭의 부친은 고창이 전북 고창이었는데 조부 일로 인해 고창에서 살수 없어 김제로 이주하여 식구들을 오게 하였고, 김제에 있게 되면서 신청인을 낳게 되었다고 한다. 문정섭은 “조부가 동학난에 참여해서 고창에 어느 시기에 왔었는데 다시 도망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부친에게 들었다고 한다. 부친은 조부의 활동에 대해 알라고 해준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로서 자식에게 못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 말을 해 준 것이라고 한다.
- 집안이 아주 못 살게 된 것에 대해 형들은 “조부가 동학한 것 때문이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 문국환(1929년생)은 본인 집안 어른 중에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이 없으나, 문만호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
- 문만호는 1894년 3월 동학도로서 무장기포에 참여하였으며, 공주방면 전투 패전 후 귀향하여 숨어 지내다 을미년 가을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종적을 감추었다고 한다.
- 문만호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기 전이나 참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전승된 사실이 없다. 다만 인우보증인 유일봉(1918년생)씨의 증언에 의하면, 동네 어른들에게 문만호의 행적과 문만호가 무장기포 시부터 송경찬, 정백현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으로 활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 문만호의 거주지인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가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무장기

포)가 시작된 무장현 동읍치면 구수내마을과 4km(직선거리)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손화중 대접주가 도소를 설치한 고창군 성송면 피치리와 8km(직선거리)에 있음을 확인된다.

- 문만호가 잠시 머물렀던 문창환의 집(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을 1956년에 고치려고 집을 분리하던 중 필탄(납탄)이 제법 많이 나왔으며 장검 한 자루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 칼과 납탄은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물건도 아니며, 발견된 장소가 찾기 힘든 곳으로 일부러 숨겨 둔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사용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문중에서 동학에 참여한 사람은 문만호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안 형님들은 문만호가 쓴 것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현재 장검은 고창문화원 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 『고창문화』 18집(이기화, 고창문화원, 2004, 220쪽)에는 “문만호가 1894년 무장땅 동읍치면 당산골에서 동학농민군 제1차 봉기 때부터 창의모집에 스스로 앞장 서서 가담하여 농민군이 되어 진력하던 중 을미년 가을에 실종이 되어 공음면 예전리 長嶺에 초혼장으로 모셔있다”고 기록되어 있다.(조사일자 : 2006. 7. 20)

3) 참여자 이재현

- 이재현은 동학도로서 장인 표종길과 함께 1894년 3월 무장기포에 참여하였으며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하여 피신 후 귀가하였다고 한다.
- 이재현의 증손자 이재곤은 2002년 경에 이춘범(1913년생, 이명:이동범), 이재형(1948년생)으로부터 증조부 이재현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 이재곤의 부친 이환범(李煥範, 1909~1987)은 이재현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환범은 후환이 무서워 이재현과 관계된 문서(죽보 등)를 모두 불태웠다고 한다.
- 참여자 이재현은 13세 때에 근처의 고창군 상리면 장호리 용두마을에 사는 부호이지만 동학접주였던 表宗吉의 딸(표용암)과 혼인하여 자연스럽게 동학교도가 되어 장인의 영향 하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는 『威平李氏縣令公派譜』(1947)에서 “裁憲 字 仁培 號 下田 癸酉九月二十九日生 甲申三月一日 卒 配 新昌表氏戊辰八月十四日生 父宗吉祖泰淵曾祖珍休外祖全州崔在道”의 기록에서 이재현의 장인이 표종길임을 확인된다.
-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891년 초에 그가 사는 오리동면 21개 마을과 이웃 정해면의 15개 마을 등을 순방하면서 접인들과 유대, 화합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 1894년 3월 무장에서 기포가 시작되자 장인 표종길을 따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 동학농민군이 패하자 장인의 지시를 받아 부안 변산의 깊은 오지에 숨어들어 오두막을 짓고 은신하였다고 한다. 그 이듬해 일본군의 토벌작전에 밀려 도망하다가 옆구리에 총상을 입어 고창 오리동면 난정마을 친척집에 숨어 있었는데 관군에게 적발되어 뒷문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쏜 총탄에 친척집 주인이 맞아 사망하였고 이재현은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한다.
- 이재현은 이후 부안 부흥산 기슭에 있는 고부이씨 재실 영모재에서 서당 훈장으로 연명하다가 세상이 느슨해지자 심원면 고전리 진주마을에 정착하여 살다가 1944년 3월 사망하였다고 한다.
- 이춘범(1913년생,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867번지)과 서석환(1935년생,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604번지)은 이재현이 장인 표종길을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피신하던 중 친척집에 숨어들었을 때 일본군에 들통이 나 도망치는데 집주인이 총에 맞아 죽고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증언하였다.
- 이상의 내용은 이기화 고창문화원장이 1960년대 현지에서 고로들의 증언을 정리하는 중에 알게 된 것으로 위 이춘범과 서석환으로부터 직접 표종길과 이재현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조사일자 : 2007. 7.5)

4) 참여자 국인영

- 국인영은 1894년 3월 동학 접주로서 각종 무기를 가지고 무장기포에 참여한 후 도피하였다고 한다.
- 국인영의 손자 국기석(1942년생)은 어려서 후포에 살 때 백부 국기철(鞠錡哲, 1903~1966)과 함께 농사일을 했는데,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백부로부터 조부 국인영의 동학농민혁명 참여내용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한다.
- 국인영의 손자 국윤석(1938년생, 부산시 수영구 막미 1동 443-5)은 국인영으로부터 직접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국윤석은 해방 후 12살 쯤(초등학교 시절) 한문에 능통했던 국인영으로부터 한문을 배우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한다. 국인영은 흥덕이 무장기포지가 가깝고 고부에서 전봉준 장군이 무장에 찾아와 봉기를 하게 되자 자신도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고 국윤석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 이식환(1931년생,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거주)과 김대윤(1934년생,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거주)은 국인영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동학농민혁명 당시 국인영이 살았던 후포마을은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이 백산으로 모일 때 지나가다가 머물렀던 곳임이 『隨錄』(『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61~162쪽)에서 “ …… 二十四日到付興德縣公兄文狀馳告內 今月二十二日午時量 不知何許人數千名 舉旗鳴鼓吹囉放砲 或騎 或步 自高敞界來到本縣沙後浦止宿 其翌直向于扶安苗浦 …… ”와 같이 확인된다.
- 동학농민군은 (1894년) 3월 22일 수천 명이 기를 들고 북을 치고 나발을 불고

포를 쏘면서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은 걸으면서 고창경계로부터 와서 사포 후포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부안 줄포로 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동학농민군의 행로와 일치한다. 이식환(1931년생, 후포리 거주)은 동학농민군이 후포로 이동해오자, 동학농민군을 후포에 숙영을 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국인영이라는 사실을 동네사람들에게 들어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식환(1931년생, 후포리 거주)은 조모로부터 조모의 부친 유종철(후포리 거주)이 집안에서 무기를 가보로 이어왔는데, 국인영 접주가 유종철가의 무기를 징발하여 동학농민군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 김대운(1934년생,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거주)은 15~6세 경 본인의 선친 김한기(1898년생)와 이성관(1896년생, 전 동아일보 정읍주재기자) 등 마을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던 중 국인영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큰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조사일자 : 2008.7.16.)

5. 무장기포지와 무장지역 동학농민군⁶⁸⁾

1) 무장기포지 출신 동학농민군

고순택(高順宅; 1858~1895) 장흥 고씨. 동학농민군 대접주. 무장현 공음면 당산에서 농사를 짓다가 1894년부터 동학농민군에 투입하여 손화중포로 무장기포와 백산봉기, 2차 기병에 참가하며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그해 12월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토벌 시 ‘동학당의 거괴(巨魁)’로 체포되어 전봉준, 손화중, 김덕명, 홍낙관 등과 함께 서울의 일본영사관으로 압송되었다. 그의 이름은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報)』 1895년 3월 2일자에도 기재되어 있다. 고순택은 다시 법무아문에 보내어져 산하 권설재판소에서 심문을 받았으나 ‘동학당에 투입하여 지방안녕을 해(害)하는 증빙이 적확치 못하다’는 이유로 3월 3일 무죄 방면되었다. 그러나 고향으로 내려오는 도중 정읍에서 다시 체포되어 3월 30일 ‘사자등’이라는 곳에서 처형되었다고 전해진다. 그의 시신은 부인이 지게로 수습하여 고향에 안장하였다. 1994년 5월 후손들이 공음면에 추모비를 세웠다.

김성칠(金聖七; 1855~1901) 광산 김씨. 무장현 청해면에 거주하다가 공음면 신촌리로 이주하여 서당을 경영하면서 훈장을 하였다. 그러던 중 1893년 12월 10일 무장현 공음면 당산리 송문수의 집에서 전봉준과 다른 동학농민군 접주 손화중, 정백현, 송문수 등 네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고 전라감사 김문현의 폭정에 거의(擧義)할 것을 약속하고 기포를 모의하였다. 1894년 2월 19일에 당시 공음면 신촌리 자신의 집에서 다시 모여 행동준비를 구체화했는데 여기 모인 사람은 앞의 5명 외에 김개남, 서장옥, 임천서, 김덕명, 강경중, 김영달, 고영숙, 최재운 등 각 읍의 접주들이었

68) 무장기포지와 무장지역 동학농민군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귀하다』(역사공간, 2011)의 「무장현 동학농민군 열전」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김성철은 자신의 집을 남접의 본부로 활용토록 하였고, 이때 쌀 50섬을 이들 농민군에게 제공하였다 한다. 그는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하였고 장남 김흥섭(金興燮)도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여 전봉준 수행원 등으로 큰 활약을 하였다.

김영달(金永達; 1852~1894. 12. 27) 김해 김씨. 원래 조상 대대로 영광 진량면에 거주하다가 12대조부터 무장 석수로 옮겨 살았다 한다. 1894년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자 농민군 창의소와 영광 농민군 간의 문서연락을 담당하여 잡동사니 등을 지고 다니며 파는 황어장수로 변장하여 문서전달과 정보수집에 주력하였다. 2차 봉기 이후 대접주가 되어 농민군 지도자 송문수를 따라 영광과 무장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농민군이 패하자 피신하였다. 1894년 말부터 시작된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어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었고, 그해 12월 27일 영광 관아 앞에서 처형되었다.

김흥섭(金興燮; 1874~1965. 10. 28) 광산 김씨. 호는 영암(榮菴).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의 진중수행원. 고창군 공음면 신촌리에서 동학접주를 하던 김성철(金聖七)의 장남이다. 김흥섭이 전봉준을 알게 된 것은 1893년 12월 10일 무장현 공음면 당산리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송문수의 집에 전봉준이 잠시 몸을 피하면서 동학군 접주 손화중, 김성철, 정백현, 송문수 등 네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고 전라감사 김문현의 폭정에 거의(擧義)할 것을 약속 기포를 모의할 때였다. 그 후 1894년 2월 19일에 당시 공음면 신촌리의 선친 김성철의 집에서 다시 모여 행동준비를 구체화했는데 여기 모인 사람은 앞의 4명 외에 김개남, 서인주, 임천서, 김덕명, 강경중, 김영달, 고영숙, 최재운 등 각 읍의 접주들이었다. 그는 약관 21세 때 동학혁명군이 기포한 3월 21일부터 전봉준의 진중수행원으로 정읍의 황토현전투를 비롯하여, 5월 31일 전주성을 점령하고 입성할 때까지 줄곧 종군하였다. 김흥섭은 기거와 침식을 전봉준 대장과 함께 하며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한다. 그는 6월 10일 전주서 강화할 때까지 전봉준을 수행하다가 그 후 대규모의 재기포 때부터는 부친 김성철이 집강으로 출진하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해 12월 동학군이 논산에서 일본군과 연합한 관군에 의해 동학농민군이 완전히 패한 후 부안군의 변산 골짜기에서 약 5년간 피신생활로 겨우 불행을 면하였다 한다. 논산전투에 참여하였던 부친 김성철도 다행히 살아남았다. 이같은 사실은 그가 남긴 기록에서 밝혀진 것인데 그의 선친이며 동학교의 접주인 김성철은 2월 모임 당시 군자금으로 쌀 50섬을 동학군에게 제공했으며 특히 황토현 대첩 때는 신이 났다고 밝힌 일도 있다. 이후 그는 서당을 세우는 한편 만년에는 사주까지 보면서 생계를 이어왔다. 92세를 일기로 고창군 무장면 송산 마을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송문수(宋文洙; ~1894. 12. 5) 여산 송씨. 무장현 공음면 용산마을 출신으로 성

장하면서 당산으로 이주하였다. 무장의 대표적인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 1893년 12월 10일 공음면 당산리 자신의 집에서 전봉준과 다른 농민군 접주 손화중, 정백현, 김성철 등 네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고 전라감사 김문현의 폭정에 거의(擧義)할 것을 약속 기포를 모의하였다. 1894년 1월 고부 백산봉기에 다수의 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2월 19일에는 당시 공음면 신촌리 김성철의 집에서 다시 모여 행동준비를 구체화했는데 여기 모인 사람은 앞의 5명 외에 김개남, 서장옥, 임천서, 김덕명, 강경중, 김영달, 고영숙, 최재윤 등 각 읍의 접주들이었다고 전해진다. 그해 봄 호남 집장소에서 다시 군을 일으키기로 할 때 그는 송경찬과 함께 동학농민군 7,000명을 이끌고 무장읍에서 봉기하였다. 그는 농민군을 장사꾼처럼 변장시켜 활동토록 하였고, 군사훈련도 병행시켰다. 10월 전후 무장에서 송경찬, 송진호, 정백현 등과 함께 다시 기포하였고 이후 주로 영광지역에서 크게 활동하였다. 송문수는 각 진읍(鎭邑)의 군기(軍器)를 탈취하고자 선박 4대로 영광 홍농면을 출발하여 전라도 해안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이어 고창 등지의 사창(社倉)에 머물면서 활동하다가 12월 3일 홍농면 민보군 이현숙(李賢淑)에게 체포되어 '동학의 괴수'라는 명목으로 같은 달 5일 포살(砲殺) 당했다. 영광 법성포 첨사를 하던 이현숙은 1894년 봄 동학에 입도한 자였지만 그해 가을 이후 배신하여 상금을 받고 오시영 등을 정부군에 넘긴 자였다. 이때 송문수를 따르던 농민군 10여 명도 함께 체포되었다. 송문수의 시신은 영광읍 사정(射亭)으로 옮겨져 백정을 시켜 머리를 자른 후 관에 바쳐졌다. 그의 묘는 구암리 장동마을에 있다.

추윤문(秋允文; ~1894. 11.) 추계 추씨. 무장 공음면 두암리 사기점 출신. 손화중의 핵심 부하이자 접주로 그가 사는 마을로 이사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군 봉기시 흥덕과 고부 사이를 오가며 농민군을 위한 전곡과 군량미를 수차례 징수하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그는 그해 11월 흥덕현 이동면 내옥리 고성천과 정읍 서남촌 강윤언, 고부 하오산 김태운과 함께 무장현의 장리(將吏)와 민병(民兵)에게 체포되어 흥덕현에서 현감의 조사를 받은 후 군민(軍民)을 모아 모두 목을 베어 처형되었고, 그러한 사실은 중앙에 보고되었다.

최경칠(崔敬<景>七; 1861~1946) 경주 최씨. 본명은 귀환(貴煥).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마을 출신. 1894년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자 현재의 구암리 구수부락에서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였으나 전해지는 별다른 기록 없이 이후에도 생존하였다.

2) 무장기포지 인근 동학농민군

곽창옥(郭昌旭(玉); ~1894. 12) 현풍 곽씨. 무장읍 사거리 출신. 1894년 3월 무장기포 때 송문수 대장의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이후 계속 송문수를 따라 다니며 장두일 등과 함께 영광으로 진출하였다가 이현숙(영광 법성포 첨사를 하다가 1894년 봄에 동학에 입도한 자였지만 그해 가을 이후 배신하여 상금을 받고 농민군을

체포하여 정부군에 넘긴 자)이 지휘하는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12월 영광관아에서 처형되었다.

김경운(金景云; ~1894. 12) 1894년 무장지역에서 도집강(都執綱)으로 활동하였다. 2차 봉기 이후 은신하였다. 그러나 그해 12월 초 2일 좌포대 대관 이규식 등이 병대를 이끌고 일본군과 함께 무장 서쪽 10리 밖의 사기점으로 행군하여 손화중의 소가에 잠시 머물렀고, 이규식은 일본군 사관 스즈키(鈴木彰)의 지시로 병정을 이끌고 무장읍으로 들어갔다. 그는 부하들에게 숨어있는 '동도 괴수'들을 일일이 잡아들이라 지시하였는데, 교장 장세복, 양기영, 홍선경과 함께 병대 140명이 은거하던 동학농민군 지도자 42명을 잡아들인 일이 있었다. 이때 김경운도 체포되었는데, '행패가 극악한 자'라는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효수되었다.

김계룡(金桂龍) 대접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김광오(金光五) 1894년 당시 정부군에 의해 '거괴(巨魁)'로 표현된 무장읍의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군무아문 대관 윤희영(尹喜永)의 군사와 일본군이 12월 16일 영광에서 회합한 후 같은 달 19일 무장읍으로 진군할 때 김문의, 박용삼, 문만조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들은 이후 고창과 흥덕 등 각처에서 잡아들인 농민군 29명과 함께 진중에 수감되었다. 김광오 등은 이때 살해되지 않고 최경선 등과 함께 1895년 초4일에 나주로 옮겨진 후 일본군 대대장에게 모두 압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행적은 알 수 없다.

김낙중(金洛鍾; ~1895) 부안 김씨. 공음면 용산마을 출신. 집안의 형뻘되는 부안의 동학접주 김낙봉의 권유로 동학에 입도한 후 1894년 무장기포, 백산봉기와 2차 봉기에 참여하였다. 1895년 봄에 민보군에 체포되어 고향에서 집단 처형되었다.

김덕여(金德汝) 접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김병운(金丙云; ~1894. 12) 청도 김씨. 무장현 하리면 장암리 고산마을 출신. 1894년 동학농민군에 들어가 3월 무장기포에 가담하였고, 이후 2차 봉기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던 중 그해 12월 12일 접주 급 19명과 함께 관군에 체포되었다. 이들 중 송진팔(宋辰八) 등 18명은 무장수령이 겸임하던 읍인 영광군으로 압송하여 죄의 경중을 가려 조치하도록 했지만, 그와 박경석(朴景錫) 2명만은 무장 현지에서 효수(梟首)되었다. 부인 조씨가 형장에서 치마폭으로 그의 목을 거두었고, 자

녀들은 정읍으로 피신하였다고 전해진다. 1994년 고창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생가 마을 앞에 추모비를 세웠다.

김성청(金成靑) 전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김순경(金順京) 대접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김영래(金永來) 대접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김유복(金有卜; ~1894. 12. 28) 동학농민군 핵심 지도자 최경선의 마부. 손화중의 기포장(起包將) 최서중과 최서중의 마부인 고창의 우복록(禹福祿) 등 13명과 함께 광주의 관군에 체포되어 '평민을 침학'하였다는 명목으로 광주목에서 가혹한 곤장형으로 1894년 12월 28일 처형되었다.

김응백(金應伯) 도성찰(都省察).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김일중(金一仲) 전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시작된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김자일(金子一) 전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김정문(金鉉文; 1873~1932) 김해 김씨. 무장현 청해면 신대리(현 고창군 해리면 신대마을) 출신. 1894년 3월 무장기포에 참여하여 동학농민군 선봉장 조성원(趙誠元) 부대에서 활동하다 관군과의 전투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귀가하였다. 2차 봉기 이후 농민군이 패하자 고향을 떠나 은신하고 있다가 이후 고창읍 신월리로 돌아와 말년까지 생활하였다

김재영(金在英) 동학도인으로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시작된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 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김천일(金千一; 1860~1894. 12) 청도 김씨. 무장현 하리면 장암리 고산마을 출신. 1894년 3월 무장기포 시기 형 병운(일명 규일圭一)과 함께 참여하였고, 2차 봉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다가 형과 함께 관군에 체포되어 형은 무장현에서 처형되었고, 그는 송진팔 등 17명과 함께 영광으로 압송 당한 후 동료들과 함께 관아에서 처형당했다. **김문의(金文儀)** 1894년 당시 정부군에 의해 ‘거괴(巨魁)’로 표현된 무장읍의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군무아문 대관 윤희영(尹喜永)의 군사와 일본군이 12월 16일 영광에서 회합한 후 같은 달 19일 무장읍으로 진군할 때 김광오, 박용삼, 문만조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들은 이후 고창과 흥덕 등 각처에서 잡아들인 농민군 29명과 함께 진중에 수감되었다. 김문의 등은 이때 살해되지 않고 최경선 등과 함께 1895년 초4일에 나주로 옮겨진 후 일본군 대대장에게 모두 압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행적은 알 수 없다.

문덕중(文德中; 1856~1894) 남평 문씨. 현 공음면 한사동(閑沙洞) 출신. 그는 동학에 입도하여 손화중 포에 속해 있었는데 농민군 접주로 활동하다가 1894년 2차 봉기 시 체포되어 12월 27일 무장 관아에서 포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인은 인왕 전씨로 이후 가족들은 3년 동안 충청도로 피신하였다 한다.

문만조(文萬祚) 1894년 당시 정부군에 의해 ‘거괴(巨魁)’로 표현된 무장읍의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군무아문 대관 윤희영(尹喜永)의 군사와 일본군이 12월 16일 영광에서 회합한 후 같은 달 19일 무장읍으로 진군할 때 김광오, 김문의, 박용삼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들은 이후 고창과 흥덕 등 각처에서 잡아들인 농민군 29명과 함께 진중에 수감되었다. 문만조 등은 이때 살해되지 않고 최경선 등과 함께 1895년 초4일에 나주로 옮겨진 후 일본군 대대장에게 모두 압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행적은 알 수 없다.

문만호(文萬浩; 1864~?) 남평 문씨. 무장현 와공면 예전리 상례마을 출신. 1894년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 시 공음면 당산골에서 농민군으로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하다가 2차 봉기 실패 후 자신의 집에 장검 1자루와 납탄 1되를 숨겨둔 후 피신하였다고 문중 내에서는 전해진다. 그러나 1895년 가을 이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문상학(文尙學; 1872~1894?) 남평 문씨. 무장현 상리면 검산리 출신. 일명 상렬(尙烈). 1894년 동학농민군 봉기 시 무장을 중심으로 영광과 함평을 오가면서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그해 늦가을 체포되어 와공면 등지에서 처형당했다고 전해진다.

문연규(文連奎) 籍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박경석(朴景錫; ~1894. 12) 밀양 박씨. 1894년 동학농민군에 들어가 3월 무장기포에 참여하였다. 이후 2차 봉기에도 참여하여 활동하던 중 무장에서 그해 12월 12일 전주 급 19명과 함께 관군에 체포되었다. 이들 중 송진팔(宋辰八) 등 18명은 무장수령이 겸임하던 읍인 영광으로 압송되었지만, 박경석과 김병운 2명만 무장 현지에서 곧바로 효수되었다.

박용삼(朴用三) 1894년 당시 정부군에 의해 ‘거괴(巨魁)’로 표현된 무장읍의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군무아문 대관 윤희영(尹喜永)의 군사와 일본군이 12월 16일 영광에서 회합한 후 같은 달 19일 무장읍으로 진군할 때 김광오, 김문의, 문만조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들은 이후 고창과 흥덕 등 각처에서 잡아들인 농민군 29명과 함께 진중에 수감되었다. 박용삼 등은 이때 살해되지 않고 최경선 등과 함께 1895년 초4일에 나주로 옮겨진 후 일본군 대대장에게 모두 압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행적은 알 수 없다.

배환정(裴煥廷; 1863~1922) 달성 배씨. 무장현 와공면 남계 출신으로 한약방을 경영. 1894년 주위의 추대로 동학농민군 籍주가 되어 농민군에 가담하여 손화중과 인연을 맺었다. 농민군 핵심 지도자 전봉준, 손화중 등과 함께 황토현 전투, 장성 황룡촌 전투에도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전주화약 이후 고향을 들렀다가 다시 나주성 전투에 최경선 부대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우금치 전투 이후 영광관아에 자진 출두하였다가 속전(贖錢) 200냥을 바치고 풀려난 후 변산으로 들어가서 약 5~6년 동안 거주하였고, 집안에서는 지금까지도 ‘약방할아버지’로 통한다 한다.

선부길(宣夫吉) 도성찰(都省察).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송경수(宋景洙; ?~1894) 여산 송씨. 무장 동음치면 당산 출신. 무장의 대표적인 동학농민군 지도자 송문수의 동생으로 1894년 3월 무장봉기 이래 인척 송진호와 함께 형의 수행원을 하였다. 2차 봉기 시 영광지역으로 들어가 활동하다 체포되어 영광관아 마당에서 처형되었다.

송경관(宋敬贊; 1859~1894) 여산 송씨. 공음면 예전리 상례마을 출신. 무장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강경중(姜敬重)과 함께 1893년 보은집회에도 참여하였다. 1894년 1월 고부 백산봉기에 대접주 손화중 포에 속해 있었던 그는 상당 수의 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그해 봄 호남 집강소에서 다시 군을 일으키기로 할 때 송문수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 7,000명을 이끌고 무장읍에서 봉기하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그는 10월 전후 다시 기포하였다. 그러던 중 농민군 패전 이후 관군에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되었고 12월 27일 인근인 현재의 무안군 묘당산 지역에서 처형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시신은 가족들이 수습할 수 없었고, 가묘만을 남기고 있다.

송경창(宋景昌) 대접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송군화(宋君化) 접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송병욱(宋秉郁; 1868~1941) 은진 송씨. 무장현 청해면 수락리 출신. 인근의 동학 접주 조성원의 권유로 동학에 입도하였다. 1894년 무장기포 시기부터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서울로 올라가 은거하였고 1904년 이후 만주와 중국을 유랑하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송영석(宋永石) 동학도인으로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시작된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송진팔(宋振<辰>八) 동학도인으로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12월 12일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무장에서는 이날 20명이 체포되었는데, 이들 중 김병운(金丙云)과 박경석(朴景錫)은 효숙되었고, 송진팔 등 18명은 수령이 겸임하던 읍인 영광으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이후 행적은 알 수 없다.

송진호(宋鎭(振;珍)浩; ?~1894) 여산 송씨. 무장현 공음면 당산 출신.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 1894년 1월 고부 백산봉기에 다수의 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그는 10월 전후 다시 기포하여 영광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그해 12월 영광관아에서 처형되었다고 전해진다.

양상집(梁相集) 제주 양씨. 무장 대정리 해정마을 출신. 그는 1894년 3월 무장기포와 9월 이후 2차 봉기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1895년 1월 16일 무장의 민보군에 잡혀 엄중히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후 1899년 무장지역 농민봉기에 참여한 후 고창 부안면 '알피(卵山)'장터에서 다시 체포되었다.

오양신(吳良臣) 접사(接司).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오응문(吳應文) 무장 장재면 남계리(南溪里) 출신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1894년 10월 함평의 서우순(徐佑順)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동학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였다.

윤상은(尹相殷) 포사대장(砲士大將).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이군서(李君瑞) 대접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다.

이남석(李南石) 도성찰(都省察).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이문교(李文教; 1858~1894. 12) 전주 이씨. 원 거주지는 영광군 묘량면 영당리로 아버지 대에 무장 청해면 안산리로 이주하였다. 동학농민군 접주로 1894년 동학농민군이 활동할 무렵에는 왕거리(왕촌)에 거주하면서 그해 3월 무장기포 시 공음면 구암리에서 동료들과 참여하였고, 4월 흥덕과 고창 전투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2차 봉기 시 원평과 태인전투에 참여하였는데, 농민군이 패하자 왕거리로 피신하였다. 그러던 중 그해 12월 이곳의 유력가문인 청도 김씨와 경주 김씨들의 밀고로 관군에게 체포되어 총살형을 당했다. 그 후 다시 시신은 기름을 부은 후 화형에 처해졌고, 부인 순창 설씨가 시신을 수습하여 마을 뒤 조시산(造矢山)에 안장하였다.

이부겸(李富兼) 접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시작된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이재헌(李裁憲; 1873~1944) 함평 이씨. 해리면 왕촌리 신흥마을 출신. 13세에 동학접주 표종길(表宗吉)의 딸과 혼인하였고 동학에 입도하여 접주가 되었다. 1894년 3월 무장봉기 때 연락과 모병을 담당하였으며 4월의 전주성 전투에도 참여하였다. 전주화약 이후 고향에 돌아왔고 9월 이후 2차 봉기 시 다시 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우금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집에 돌아온 후 다시 부안 방면으로 은신하였다. 그러나 1895년 패잔 동학농민군 토벌작전 시 재차 피신하였고, 이후 심원면 고전리 진주마을로 옮겨 여생을 보냈다 한다.

장두일(張斗一; ~1894) 인동 장씨. 무장면 정거리 출신의 동학농민군 대접주. 1894년 1월 고부 백산봉기에 다수의 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이후 농민군 지도자 송문수 휘하에서 활동하면서 10월 전후 다시 기포하였다.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토벌시 체포되어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었고, 영광에서 처형되었다 한다.

전막동(全莫同; ~1899. 음4. 27) 무장현 사점(沙店) 출신. 1894년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여 천보총(千步銃)을 들고 관군과 접전하였고 무장 이방처(吏房處)에서 300량을 거두어들이는 일이 있었다. 그는 농민군 패주 시 피신하였다가 1899년 음력 4월 23일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알피(卵山)장터' 전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고 같은 달 26일 고창의 수성군에게 체포되어 가혹한 심문을 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다음 날인 27일 밤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전성숙(田成淑; ~1899. 음4. 27) 담양 전씨. 무장현 사점(沙店) 출신으로 정읍 접주 최익서의 권유로 동학에 입도하여 1894년 무장기포와 2차 봉기 등에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농민군 패주 시 피신하였다. 이후 1899년 음력 4월 23일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알피(卵山)장터'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달 26일 고창의 수성군에게 체포되어 가혹한 심문을 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다음 날인 27일 밤 전막동 등과 함께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정덕수(鄭德守; 1860~1894. 4) 동래 정씨. 공음면 예전리 출신. 동학교도 문만호(文萬浩)의 권유로 대접주 손화중 부하인 송문수 부대에 들어가 1894년 3월 공음면 봉기 때 문만호와 함께 농민군을 규합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해 4월 말 전주입성을 위한 용머리고개(龍頭峴) 전투에서 관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전해진다.

정백현(鄭伯賢; 1869~1920) 진주 정씨. 공음면 예전리 상례마을 출신. 호는 진암(眞菴). 어릴 적부터 글로서 이름을 날렸으며 전봉준 비서로 활약하면서 글 짓는 일을 맡아 보았다. 1893년 11월 고부 서부면 중산리 송두호 집에서 세상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20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사발통문 서명자 중의 한명이다. 1894년 3월 백

산봉기 때 송희옥(宋喜玉)과 함께 총대장 전봉준의 비서로 발탁되었다. 10월 전후 무장에서 송문수, 송경찬, 송진호 등과 함께 다시 기포하였다. 그는 동학농민군이 패퇴하자 전봉준이 태어난 당촌마을 앞 신촌에 있는 친구 봉정범의 집으로 피신하였고 다시 서울로 피신하여 9년 동안 지내다가 이후 1903년 경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농민군 봉기 당시 그의 아버지 만원(萬源)은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제에 걸려 고부 수성군에게 끌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저서로 시문을 모은 『진암견문록(眞菴見聞錄)』을 남겼다.

정재찬(鄭在燦; 1864~1923) 성송면 산수리 출생. 동학농민군 핵심 지도자 손화중이 성송면 피치리에서 활약할 때 손화중 동생 손익중과의 인연으로 동학에 입도하였다. 그는 1894년 손화중을 도와 동학농민군을 훈련시키는 한편 스스로 농민군 활동에 가담하여 무장 당피골에서 봉기하였다 한다. 농민군이 패하여 흩어지자 그도 피신하여 20여년 간 전국을 떠돌다가 여생을 마쳤다고 전해진다.

조경순(趙景順) 대접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조성원(趙聖元; 1857~1894?) 한양 조씨. 해리면 고성리 사미동 출신. 동학 핵심지도자인 대접주 손화중과 연결되어 동학지도부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1894년 3월 무장봉기 시 해리지역 중심인물로 참여하였고, 백산봉기 시에는 손화중의 막료로 활동하였다. 5월 전주성 전투에도 참여한 그는 전주화약 이후 무장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차 봉기 이후 동내에 숨어 있다가 이장 박춘명의 밀고로 체포되어 합평으로 옮겨져 처형되었다고 전해진다. 가족들이 그의 시신을 백방으로 수배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뒷날 가묘를 쓰게 되었다 한다.

최문학(崔文學) 접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고, 당시 정부측 기록에는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로 기록되어 있다.

최순칠(崔順七) 대접주. 1894년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대토벌 시 체포되었다.

표종길(表宗吉; ~1894. 12) 신창 표씨. 무장현 상리면 복구동 출신. 동학에 입도하여 접주가 된 후 1894년 3월 무장기포 때 중위장(中衛將)이 되어 동학농민군을 통솔하였다 한다. 같은 달에는 고부군야를 점령하고 다시 황토현 전투에 참여하는

한편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 운영에 주력하였다. 2차 봉기 이후 농민군이 패할 무렵 지역의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주장 칠거리에서 효수형으로 처형되었다 한다.

황화성(黃化性; ~1894. 5. 3) 창원 황씨. 무장현 상하면 갈산리 출신. 부인은 밀양 박씨로 영광군 흥농면 출신이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1894년 공음면 출신의 송문수 휘하의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여 집안 일가와 함께 3월 무장기포와 4월 27일 전주전투에 참여하여 전주성을 점령한 후 정부군과 교전 중 5월 3일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 가족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상하 장운동에 가묘를 마련하였다.

황희성(黃熹性; 1872~) 창원 황씨. 무장현 상하면 갈산리 출신.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그해 무장기포 직전 동생 화성(化性)과 함께 송문수 대장 휘하서 활동하였으며, 4월 28일 전주성 전투에도 참여한 바 있다.

- 제120주년 기념 -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